metro
메트로 2014년 2월 26일 수요일 제2122호 www.metroseoul.co.kr

평창도 씨이당!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한국 선수단이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로 전원에게 수제 조립밋으로 만든 금메달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왼쪽부터 모태범·김아랑·조해리·박승희·이상화·김연아와 김재열 단장. /연합뉴스

4%성장·70%고용·4만달러 소득 도전

저성장 늪 탈출 위한 구원투수로 제2벤처붐 등판
임기 내 '474 비전' 실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박근혜 정부가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제2의 벤처붐'을 등판시켰다.

8년째 2만 달러 덫에 걸려있는 1인당 국민소득을 대통령 임기 내에 4만 달러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잠재 성장률 4%대, 고용률 70% 등이 포함된 '474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재정·세제 개혁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 혁파와 서비스산업 활성화·소비 여력 확대 등을 추진해 2017년까지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쌓겠다는 의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성명발표으로 40여 분간 이뤄진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약 한 달 반 만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만3000명 창업자 육성

이번 계획으로 개념이 모호했던 창조경제는 벤처 활성화 등 창업 촉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596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0억원, 재창업 지원에 7730억원 등 4조328억원을 3년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청년창업펀드와 엔젤투자펀드를 정부 재정 4600억원, 민간 매칭 3000억원 등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민간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고 나스닥 등 선진 자본시장 상장과 해외 유망 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겨냥한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코리아리서치펠로우십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3만7000명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기술은행 설립 등도 추진한다.

◆청년·여성 일자리 160만 개 창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내수 경제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10만 개(고용률 39.7%), 29만 개(53.9%)에 그쳤던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2017년 50만 개(47.7%), 150만 개(61.9%) 등 총 160만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규제에는 존속기간과 재검토기한을 미리 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폐지하는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신설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에서는 고용보험 대상을 보험모집인·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으로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시 주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푸는 것도 검토한다. 주택 부문에서는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 보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통·통합 리더십 필요

이번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 설정은 잘했지만 백화점식 정책 나열은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 및 노동계·기업, 중앙·지방정부 내부, 업종·업역 간의 이해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이번 계획에 우리 경제가 추진해야 할 모든 정책을 망라했다"며 "하지만 3년 안에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재도약하려면 산업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체질 개선,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 발씩 물러나면 미래에 모든 경제 주체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돼야 이번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여성안심 편의점 생긴다
비상벨 누르면 경찰 출동

서울시는 24시간 편의점 656곳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위급 상황에 대한 조치와 여성 직원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성안심지킴이집은 112 직통 신고 시스템을 갖춰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도록 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면 112로 연계되는 '무 다이얼링' 시스템도 확보했다.

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들이 항상 계산대에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해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무선 비상벨도 희망하는 점포에 지원한다.

여성 직원이 원하면 '안심귀가스카우트'를 불러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서울 시내 5709곳 중 참여 의사가 있거나 유흥가나 인적이 드문 656곳을 선정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편의점 출입문 오른쪽 위에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해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황신유기자 mlxh@

후임 한은총재도 늑장인선?

기자 수첩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자리 창출 지원' '디플레이션 자유자' '시장과의 소통 능력' '중앙은행의 독립성'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후임 총재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지만 총재의 역할과 자질을 놓고 말들이 많다.

최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가 한은 총재가 돼야 하는가' 토론회에선 여러 전문가들이 설전을 벌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 총재의 역할이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침체) 자유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기 침체기에는 신용 공급을 통한 중앙은행의 불씨 지피기 역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반면 김대식 전 금통위원은 "한은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모두에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보다 앞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아직도 금융권 안팎에선 차기 총재직을 둘러싼 하마평만 무성하다. 차기 총재의 역할론도 중요하지만 후임자 인선 작업이 길어질수록 '늑장 인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루빨리 후임 총재가 지명돼 다양한 의견과 시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총재의 모습을 보고 싶다.

북한 경비정 NLL 세차례 침범

이산가족 상봉기간에…강력 대응하자 북상

이산가족 상봉 기간인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북한군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어제 저녁 10시56분부터 연평도 서방 13노티컬마일(23.4km) 해상에서 북한군 경비정 1척이 NLL을 세 차례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고 통신 등의 대응 조치에 따라 오늘 새벽 2시25분경 NLL을 넘어 북상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경비정은 NLL을 2노티컬마일(약 4km) 정도 침범하며 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이날 새벽 0시25분 북한 경비정이 세 번째 침범했을 때 "북상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경고 통신을 보냈고, 북한 경비정은 지그재그로 북상하면서 2시간 정도 NLL 남쪽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북측의 NLL 침범 형태는 훈련 또는 정찰의 일환으로 우리 군의 대응을 시험할 목적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다"며 "의도적 계산에 의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비해 북한군보다 훨씬 더 우세한 군사적 수단을 현장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한 우리 해군의 대응은 경고 통신→경고 사격→격파 사격 순이다. 이번 침범 당시 연평도 인근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껴 육안 시정이 100~500m에 불과해 레이더 외에는 경비정을 포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경비정의 NLL 침범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16일 침범 이후 6개월 만이다. 지난해에도 세 차례 침범하기는 했지만 이산가족 상봉 기간에 침범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당국은 북측이 지난달 16일 서해 5도 등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자는 '중대 제안'을 스스로 어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연준기자 mik.m@metroseoul.co.kr

언제 다시… 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 작별상봉을 마친 북측 상봉자들이 버스에 탄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측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있다. /연합뉴스

눈물 상봉 끝…"정례화" 한목소리

3년4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5일 종료됐다.

지난 20~22일 1차 상봉에 이어 23일부터 시작된 2차 상봉에 참가한 북측 상봉 대상자 88명과 남측 가족 357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금강산호텔에서 '작별상봉'을 한 뒤 헤어졌다.

이산가족들은 작별 상봉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오열했다. 고향의 봄, 가고파 등 노래를 부르고 큰절을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북측 최고령자 박종성(88)씨는 세 여동생 종분(80), 종옥(74), 종순(68)씨에게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살자"며 울었다. 동생들은 "오빠, 우리 오빠! 보고 싶어 어떻게 사느냐"고 오열하면서 "통일되면 보자"며 건강을 당부했다.

남궁봉자(61)씨는 북측 아버지 남궁렬(87)씨에게 "오래 사셔야 다시 만난다"라며 건강을 당부했고, 아버지는 "또 보자꾸나. 기다려. 다시 만나자"며 또 한 번의 만남을 기약했다.

남측 상봉 단장인 김종섭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는 이날 헤어지기 전에 북측 단장인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에게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 부위원장은 "아직 포기하지 말고"라며 "북남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남측 가족은 오후 1시께 금강산을 출발, 오후 4시30분께 강원도 속초로 돌아왔다. /김도훈기자

전재용·이창석씨 항소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용씨와 이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1심 재판부의 양형과 벌금 액수가 적다고 판단,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용씨 측은 지난 12월 선고 공판이 열리기 직전까지 양도세 산정과 관련해 추가 심리를 요청하는 등 그동안 "추징금 납부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왔다.

앞서 법원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현정기자 jh@

국산 K-11 소총 25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인근 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28사단 백룡전사 선발대회에서 장병이 K-11 소총을 조준하고 있다.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K-11 소총은 건물이나 참호 뒤에 숨은 적을 살상할 수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상향식 공천제 확정

새누리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별 여론조사와 경선 등을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되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와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전략공천과 사실상 같은 의미인 우선공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여성·장애인만 제외하고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 배제의 한계를 절감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에도 우선공천을 실시하도록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상임전국위는 김무성 의원 등의 지적을 반영해 전략공천 과정에서 중앙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여'라는 문구를 추가, 수정 의결했다. /조현정기자 jh@

노후 경유차 10대중 8대 운행

서울 운행 19%만 조치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 10대 중 8대꼴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05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 49만1894대가 시에 등록돼 있다고 확인하고 이 가운데 19%인 9만3823대만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무려의 등록 차량 가운데 81%가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주행하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으로 개조, 조기 폐차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 한 대당 179만~731만원이 지원된다.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0년간 총 26만5591대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했다.

/김보준기자

학생 비만율 농촌>서울

농촌지역 학생들의 비만율이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756곳을 대상으로 학생 8만4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17%로 도시지역의 1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 비만율 역시 16.1%로 도시지역의 14.5%보다 높았다.

교육부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신선식품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진 점 등이 비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만 학생 비율은 ▲2009년 13.2%에서 ▲2010년 14.3% ▲2011년 14.3% ▲2012년 14.7%로 증가 추세다.

/윤다혜기자

좋은 날! 25일 열린 숙명여대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축하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안현수 토리노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

2006년 2월 26일 제20회 겨울올림픽이 열렸던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1000m와 1500m를 휩쓸며 승부 근성으로 우승한 안현수는 5000m 계주에서도 우승해 금메달 3관왕의 위업을 안았다. 미국의 단톤 오노는 "안현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몇가지 길을 열었다. 어딜가든지 잘 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이체 사기에 통신 3사 고객정보 악용

검찰, 정황포착 유출 경로 조사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의 불법 자동이체 사건에 활용된 개인정보는 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불법 자동이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가 범죄에 활용된 정황을 포착, 최근 이들 통신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11만 건의 불법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유령 IT 업체를 급조,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의 자동이체 거래로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로 사기단 일당 5명을 기소했다.

사기단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상을 접촉, 300만원을 주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외에 유선 인터넷 사업을 벌이는 일부 케이블 업체 고객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은 고객 DB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직접 유출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판매점에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사기단 일당과 DB 판매상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입수 경위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교복 판촉에 학생 동원 못한다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 교복', '교복 담합'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교육 당국이 학생들을 교복 판촉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최근 시내 중·고등학교에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복 구매 안내와 생활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교육청은 일선 초·중·고교에 예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교복 구매 방법을 알리도록 했다.

또 교복 업체나 교복 대리점이 금품을 주고 학생들을 자사 교복 판촉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활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주관 구매나 공동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복 간소화를 위해 평소 생활복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윤다혜기자 yeh@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25일 오전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2013년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사학기관 신규 임용 공개전형 위탁 업무협약, 솔선수범 맞춤형 청렴 교육·홍보, 정보통신기술(ICT) 감시 시스템을 우수 사례로 들었다.

/윤다혜기자

차량 견인비 최대 33% 오른다

시, 17년만에 대폭 인상 보관요금도 30분당 500원→900원으로

앞으로 주차 위반을 하면 만만찮은 금전 부담을 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역 주차 위반 자동차 견인 기본요금과 차량보관요금 등이 17년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차량별 견인 기본요금을 26.5~33.3%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차 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견인 소요비용이란 주차 위반 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개정안을 보면 2.5t 미만 차량 견인 기본요금(편도 5㎞까지)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2.5t 이상 6.5t 미만은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6.5t 이상 기본요금은 현행과 같은 5만원이다. 1600원인 2.5t 미만 추가요금(매 1㎞ 증가 시)과 1400원인 2.5t 이상 6.5t 미만, 2500원인 6.5t 이상 추가요금도 현행과 같다.

보관요금도 오른다. 30분당 500원에서 30분당 900원으로 인상하되 1일 상한액(1만5000원)을 신설했다.

부산시는 개정 이유와 관련, 차량 운행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유류비 등 물가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1996년 이후 17년간 동결한 견인 소요비용의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3월 11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기관·단체·시민 의견을 받는다. /뉴시스

'뿌리 찾기' 프로젝트로 문화융성 기반 구축 추진

부산시는 '뿌리 찾기를 통한 문화융성 기반 구축 계획'을 수립,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뿌리 찾기 사업'은 애향심 고취는 물론 부산의 정체성 회복, 창조적 문화도시 발판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부산시는 ▲문화·역사적 자산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부산문화자산 체계화 ▲홍보와 단계적 관광 상품화 추진을 통한 문화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가치확산과 일상 속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 인지도 제고 등 3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과제인 부산 문화자산 체계화를 위해 역사의 전환기 현장, 잊힌 부산 사건, 자갈거리 등 다양한 문화자산을 발굴해 스토리텔링(History telling)과 결합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표지판 제작, 시 문화재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제인 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뿌리지도, 도시얼도역사 노선도를 제작하고 뿌리 찾기 투어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인지도 제고 지원에서 '부산의 발전' 영상을 제작하고 뿌리 찾기 공모전과 기획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3월부터 분야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4월께 뿌리찾기위원회를 구성한 뒤 5월께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로봇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데니스 홍 교수 28일 특강

'로봇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데니스 홍(한국명 홍원서) 미국 UCLA대학교 기계항공공학 교수가 28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특별 강연을 한다.

이번 특강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창립 10주년과 부산생활과학교실 10주년을 기념해 열린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특강은 이날 오후 2시30분 과학드라마팀의 공연에 이어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동의대·佛 대학 합작영화 제작

영화·영상+IT 미개척 분야 '인터랙티브 웹 다큐' 제작 워크숍 가져

동의대 영화학과가 영화·영상과 정보통신기술(IT)을 융합한 인터랙티브 웹 다큐멘터리 분야 개척에 신호탄을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

동의대는 이 대학 영화학과 차민철 교수와 학생 7명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국립 '파리 에스트 마른느 라 발레 대학'에서 개최된 '인터랙티브 웹 다큐멘터리(Interactive Web Documentary) 한·불 공동 제작 워크숍'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파리 에스트대학 뒤 문화기술 석사과정 학생 40명, 대학교수진 6명이 참여했으며 티에리 봉종 교수와 차민철 교수의 지도로 '도시와 디지털'을 주제로 한 불 공동 제작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 향후 장기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들이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웹 다큐멘터리 분야로,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보다 진화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영화를 개봉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인터랙티브 웹 다큐멘터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가장 진화된 형태의 인터랙티브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이자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미개척 분야로 영화·영상과 IT의 융합 분야다.

차민철 교수는 "현재 유럽연합(EU)과의 교육 협력네트워크 형성과 학생 교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파리 에스트대학은 지난해 1차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평가 제고로 올해 2차 교류 프로젝트에 3만 유로(약 45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의대와 파리 에스트대학은 올해 2차년도 교류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파리 에스트대학 학생 40명, 교수진 5명과 관련 분야 프랑스 전문가 4명이 동의대를 재방문해 공동 제작을 진행한다.

이 밖에 2014년 제3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주한프랑스문화원을 통해 상영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신입생 발 씻겨주는 교수님 25일 부산 사상구 동서대 민석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4학년 입학식에서 학부장들이 신입생 대표와 학부 대표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 이날 세족식은 새로 입학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자는 뜻으로 마련됐다. /연합뉴스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

부산시가 내달 25일까지 시내버스 안전관리 일제 합동 점검에 나선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등록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송 사업체 33개 업체 2511대 중 17개 업체 927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안전 운행에 대해 부산시와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른 자동차 안전 관리 이행여부 ▲점검 불량 및 파손 자동차 운행 여부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 등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안전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분기별로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운송 사업체와 정비·검사 관련 업체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점검에서는 내연용기점검 미흡 19건, 타이어 관리 부실 41건, 등화장치 부적합 35건, 소화기 관리 미흡 58건 등 총 242건을 적발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장하균기자

'스토리텔링의 옷' 입는 공원·유원지

부산시설공단은 '품격 있는 공원·유원지' 사업의 하나로 공원별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부산시설공단이 관리 운영을 맡은 부산지역 공원과 유원지는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4곳.

공단은 중앙공원의 주제는 민족혼, 어린이대공원은 교육, 금강공원은 역사, 태종대 유원지는 관광으로 각각 설정하고 주제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금강공원은 역사라는 주제에 맞는 민속전통예술, 동래학춤에 얽힌 이야깃거리를 발굴하고 어린이 대공원은 동식물 생태연구 중심, 가족 단위 놀이문화 중심의 이야기를 개발할 방침이다.

공단은 공원·유원지 상징 테마화단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터널 3곳에 자동경보시스템 설치…교량별 신속대응팀 구성…

교통사고 체증 확 줄인다

시, 돌발사고 대비 소통·예방책 10가지 내놔

부산시가 터널·교량에서의 각종 교통사고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해 교통 돌발사태에 대비한 '소통과 예방 10가지 대책'을 내놨다.

부산은 지형상 터널이나 교량이 많다. 그동안 수많은 교통사고가 터널이나 교량에서 많이 발생됐다.

이에 부산시가 교통 돌발사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교통 돌발사태는 일반도로와는 달리 인명사고를 동반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교통사고 처리 시간도 일반도로에 비해 오래 걸려 교통 혼잡 야기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교통 돌발사태 소통대책'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모니터링 기능 강화 ▲신속대응팀 구성 ▲공조무선망 활용 ▲상시 감시를 위한 자동경보시스템 구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교통 돌발사태 발생 시 교통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2차 사고 예방과 우회도로 안내, 교통정보 예보 기능을 겸비한 부산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실시간 교통정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터널·교량 등에서 교통 돌발사태 발생 시 교량별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기관, 구·군 교통과, 소방서, 견인업체, 보건소와 병원 등을 함께 묶어 터널·교량별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한다.

시는 터널 교통사고 시 2~3시간 걸리는 처리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최대한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조무선망(Trunked Radio System)을 교통 돌발사태 발생 시에도 공동 활용해 시와 경찰청, 시설관리업체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갖춰 교통 돌발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터널 3개소(황령터널, 백양터널, 만덕2터널)에 대해서는 돌발사태 상시 감시를 위한 '자동경보시스템(교통 돌발사태 발생→자동 경보→상황전파)'을 구축해 2차 사고 예방과 우회도로 안내를 통한 교통 정체를 해소할 방침이다.

교통 돌발사태 예방대책으로는 ▲수시 점검 및 합동 점검 실시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 ▲위기대응 훈련 실시 ▲표준 매뉴얼 마련 보급 ▲관계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운영 ▲안전운행 경고방송 싸이키 기동 순찰대 활용 등을 마련 시행한다.

먼저 터널·교량 등 위험 도로에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조명, 차선 등 시설물의 수시 점검과 유관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터널 내 전방 상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하다 차량 정체 시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사고 다발 황령터널, 백양터널, 만덕2터널의 출·입구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이 밖에 터널, 교량 등 대형 교통사고 사례 분석과 교통사고 현장 합동 조사를 통해 돌발사태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전문가 TF팀을 3월 중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발족한 부산지방경찰청의 싸이키 기동 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교통 돌발사태 예방에 전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미리 불러보는 '대한독립 만세' 제95주년 3·1절을 나흘 앞둔 25일 경남 거창군 위천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3.1운동 거리행진에 사용할 태극기를 준비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숙 중구청장 대한약사금장 수상 김은숙(왼쪽 셋째) 부산중구청장이 지난 23일 서울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약계 최고 권위의 '대한약사금장'을 수상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 중구청장은 부산시 초대 보건복지여성국장, 여약사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여성총연대 상임 공동대표 등을 맡아오면서 약사 직능의 위상을 높인 공을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됐다.

노찬용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한·중 그린제품 소비성향 논문 눈길

학교법인 성심학원 노찬용(63·사진) 이사장이 최근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에서 국제학 박사학위(국제통상전공)를 받아 학계와 경제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은 '한·중 소비자의 환경가치 지향성이 그린제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다.

이 논문은 소비자들의 가치관에 따른 그린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중 소비자들 간의 문화 성향 차이에 따른 그린 행동에 주목한 연구라는 점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개척 분야의 연구주제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친환경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이사장은 "최근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그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목표 시장 소비자들의 환경 가치 지향성과 문화 성향 차이를 분석한 최신 자료가 절실한 것 같아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해운대 스마트비치 상표등록

부산 해운대구는 현금 없이도 편리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해운대 스마트비치'가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원등록 종목은 산업재산권 상표등록 서비스표 인정을 받는 등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해운대해수욕장 고유 브랜드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재등용문 현장체험

부산 동래구는 오는 28일 지역 내 동래, 동인, 사직여고, 학산여고 등 11개 남녀 고교생 65명과 교사들이 서울대 관악캠퍼스를 둘러보는 '인재등용문 현장체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체험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2~3학년생으로 서울대 입시설명회는 물론, 캠퍼스 탐방으로 면학 의욕을 다지고 진로 선택 등에 도움을 받게 된다.

또 같은 학교 출신 선배 등을 만나 공부법과 대학 생활 등에 대해서도 들어본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

부산시는 3월부터 20명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희망 장소와 날짜를 정해 신청하면 해당 장소를 방문해 주요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설명과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원순환(recycling of resource)이란 생산이나 소비 등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재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회에서는 각종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등의 주요 정책이 소개된다.

지난해는 25회 367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으며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4회, 총 40회 연다. 참가 신청은 방문 희망일 2주 전까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또는 전화(051-888-5001~2), 팩스(051-888-5009),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자원순환과) 등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시위진압 군대 투입 문건 발견

실각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외 탈출설

실각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수도 키예프에 군대 투입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발견된 군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 계획이 실행됐다면 지난 20일 100여 명이 숨진 유혈 참사보다 더 끔찍한 대규모학살이 일어날 뻔했다고 FT는 설명했다.

군대 동원 계획이 담긴 문건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호화 사저 인근에 버려진 정부 문서들 사이에서 발견됐다.

야누코비치는 사저를 떠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정부 문서들을 소각하거나 사저 내 인공호수에 버렸지만 상당수 문건들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반정부 시위대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정부 문서 등을 공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군대 문건에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3개 부대를 키예프로 진격시킨다는 등의 구체적인 군 투입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FT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대량학살 모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세우려는 우크라이나 이 권이 이번에 발견된 군대 문건으로 힘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국외 탈출설도 나오고 있다.

현부 현지 언론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개인 요트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센 아바코프 내무장관 대행은 21일 동부 지역에서 전세기로 도주하려다가 실패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튿날 크림반도 남부의 한 사저에서 묵었다고 밝혔다. 이곳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여러 차례 요트를 타고 들른 적이 있는 장소다.

그러나 한 항구 보안 관계자는 일전에 그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곳을 찾은 기억을 떠올리며 "항구 주변에서 큰 승용차를 보지 못했다"고 요트 탈출설을 부인했다.

/조선미기자 soonmi@metroseoul.co.kr

미 육군 45만명 줄인다

주한 병력은 그대로

미국 육군이 수년 내 44만~45만 명으로 축소된다. 주한미군 병력 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헤이글 장관은 육군을 기동력과 현대화, 장비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병력 규모를 44만~4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차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인 1940년 이후 최소 규모다. 미 육군은 9.11 테러 이후 한때 57만 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점차 줄어 2005년에는 49만 2000명 수준으로 내려갔다.

헤이글 장관은 "예산 감축에 따라 병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병력을 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육군 규모를 대폭 조정했지만 한반도 상황을 고려, 주한미군 병력 수는 기존의 2만8500명 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탱크킬러'로 유명한 A-10 공격기의 운용도 중단된다. A-10 공격기는 냉전시대 소련이 탱크로 유럽을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주한미군에도 순환 배치되고 있다. /조선미기자

카니발 분장 23일(현지시간) 아이티 자크멜 지역에서 열린 카니발 퍼레이드에서 한 남성 참가자가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한에 대규모 정전사태?…야간 모습 공개

24일 미국 항공우주국 NASA 이 공개한 한반도 사진에서 북한이 새까맣게 보인다. /NASA

북한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개한 한반도 사진에서 북한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외신이 전했다.

이 사진은 국제우주정거장(ISS) 우주인들이 지난달 30일 동아시아 상공을 지나면서 촬영한 것이다. 야간에 반짝반짝 불빛을 내뿜는 한반도의 전경이 담겨있다. 하지만 불빛은 남한에서만 쏟아져나온다. 북한은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깜깜하다.

NASA는 성명을 통해 "북한은 이웃한 남한, 중국과 비교할 때 완전히 어두운 상태다. 마치 서해에서 동해로 이어지는 바다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에서 북한은 해안선조차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차이는 두 나라의 전력 소비량에서도 드러난다. 남한은 전력 소비량이 시간당 1만1623kW에 달하지만 북한은 739kW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 사진이 전혀 다른 두 '코리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미기자

애완동물 배설물 수거통 등장 '눈길'

metro Peru

최근 페루 수도 리마에 '똥 먹는 상자'(사진)가 설치됐다. 거리에 마구 버려지는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기 위해 시 당국이 마련한 것.

둥근 모양의 통 위에는 커다란 스티커가 붙어있다. 스티커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 차기, 큰목소리로 다른 사람 욕하기 등 공공장소에서 해서는 안되는 '6가지 추태'가 적혀있다.

이번 캠페인아이디어를 제공한 지역 커뮤니케이션 단체의 윌리엄 아르구메도 대표는 "귀찮은 일로 여겨지는 배설물 청소를 하면서 시민들이 한바탕 웃을 수 있도록 스티커를 똥상자에 붙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애완동물의 배변을 치우는 동시에 각종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 덕분에 대부분의 통에는 배설물이 가득하다. 현재 31개의 상자가 설치됐으며 다음달에 추가로 30개가 설치된다고 시 당국은 밝혔다.

/정리=조선미기자

中 상위 10%가 자산 60%

중국의 상위 10% 가정이 전체의 60%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난개경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는 24일 '2014 중국재부관리 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상위 10%가 전체의 60.6%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3.3%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저소득층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유층의 경우 금융자산과 상업자산 등을 가지고 있어 타격이 덜하지만 저소득층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코스닥
1964.83 (+15.81)	528.01 (+2.27)

금리	환율
2.9 (-0.01)	1073.0 (변동없음)

뉴스 & 뉴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B학점'

● 공인중개사 10명 중 4명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B학점 이상의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자사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655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점수는 'B학점'이 28.1%(18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C학점'이 23.2%(152명), 'F학점'이 18.2%(119명), 'D학점'이 16.8%(110명), 'A학점'이 13.7%(90명) 순이었다.

/박○○기자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삼성 모바일 언팩 2014 행사에서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갤럭시 S5 와 삼성 기어2, 삼성 기어 핏 등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심박센서·지문인식 "놀라운 폰"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2014 — 삼성전자 5.1인치로 화면 키운 '갤럭시S5' 공개

삼성전자가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를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14'에서 전격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MWC 2014' 전시장 인근 국제회의장에서 언론사와 거래처 관계자 등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품 발표(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S5'와 웨어러블 기기인 삼성 기어 3종을 선보였다.

이날 첫선을 보인 갤럭시S5는 전작 갤럭시S4(4.99인치)보다 큰 5.1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또한 스마트폰에 심박 센서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측정하거나 삼성 기어 제품군과의 연동을 통해 운동량을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문인식 스캐너를 탑재해 보안성도 높였다. 당초 일각에선 갤럭시S5에 홍채인식 기술을 탑재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으나 결론적으로는 지문인식 기능만을 탑재했다.

아울러 카메라, 인터넷, 생활 방수 방진 기능 등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의 성능을 높인 아이소셀 방식의 16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패스트오토포커스 기능을 이용해 초점 속도가 0.3초까지 빨라졌다.

인터넷 역시 갤럭시S5에 삼성전자의 향선 통신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롱텀에볼루션(LTE)과 와이파이(Wi-Fi)를 하나처럼 이용해 데이터를 더 빠르게 내려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부스터' 기능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서 물기나 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IP67' 인증을 획득한 생활 방수 방진 기능도 적용됐다.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장 사장은 "갤럭시S5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 기대하는 본연의 기능을 가장 충실하게 완성한 스마트폰"이라며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를 비롯해 함께 공개한 삼성 기어2, 삼성 기어2 네오, 삼성 기어 핏 등 웨어러블 기기 모두 4월부터 150개국 이상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갤럭시S5 출시가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도 관심사다.

시장상 예측과 상반이 양분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용가을 출시될 애플 '아이폰6'에 앞서 갤럭시S5가 먼저 출시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시장 주도권은 삼성이 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KT 日·中 이통사와 로밍 시연

KT가 24일 'MWC 2014'에서 차이나모바일 및 NTT도코모와 이종(TDD-FDD)간 LTE 로밍 시연을 선보였다. 사진은 왼쪽부터 사토루 카노시타 NTT도코모 상무, 류 훈쥐 차이나 모바일 본부장, 김재현 KT 모바일혁신팀장. /KT 제공

중소기업 업황전망 호전

● 중소기업 경기가 다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17일 중소 제조업체 1341곳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3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86.3)보다 6.8포인트 상승한 93.1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5개월 만에 상승세다. 중기중앙회는 일부 업종의 계절적 비수기가 끝난 데다 신학기와 기업들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기가 맞물려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이국명기자

가계부채 1000조 넘어 '사상최대'

가계부채가 결국 1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총액을 끌어올린 탓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102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9월 말의 993조6000억원보다 27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를 통한 판매신용을 합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은 963조원, 판매 신용은 58조3000억원으로 1년 새 57조5000억원(6.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7조8000억원(가계대출 24조1000억원, 판매신용 3조7000억원)이 4분기에 늘었다.

특히 3분기 2조1000억원에 그쳤던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4분기에는 8조4000억원으로 4배나 커졌다.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연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민지기자 minji@

코스피 1960선 회복 25일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1960선을 회복하며 전날보다 15.81포인트(0.81%) 오른 1964.88으로 장을 마감했다. 달러-원 환율은 1.4원 내린 1072.3원에 마감됐다. 사진은 이날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우리자산' 품은 키움, ETF 키운다

키움증권이 우리자산운용 인수를 통해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의 판매 부문을 강화할 전망이다. 비교적 고위험에 속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ETF로 펀드 범위를 확대하면서 투자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자산운용 인수를 확정한 키움증권은 ETF 선도 업체인 우리운용의 노하우와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우리운용은 지난 2002년 ETF 시장이 출범할 당시 삼성운용과 함께 ETF 도입에 앞장섰으며 업계 9위 수준이었다.

키움 계열사인 키움자산운용은 이번 인수를 통해 50위권 밖에서 단숨에 7~8위 수준으로 오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로 키움증권이 안정된 펀드 수익 모델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지난 수년간 고유의 수익 모델에서 다소 벗어나 저축은행 인수와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 자체 운용 등의 신사업에 진출했으나 재무적 손실과 이익 변동성에 직면했다"며 "이번 자산운용사 인수는 이러한 시행착오 후 위험이 낮은 수익 모델로 회귀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인수로 펀드의 온라인 판매망도 확대된다. 온라인으로만 펀드를 판매하는 키움운용과 온·오프라인망을 갖춘 우리운용이 합쳐져 온라인 부문이 더 확대되고 오프라인 망도 새로 갖춰진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755억원(자기자본 대비 8.77%)에 우리운용 인수를 확정했으며 정식 인수계약 등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김현정기자 h.kim@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송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판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61~3
부산광고문의	051)638-2100
독자센터	02)721-9891

보험분쟁 증가 '이유있네'

당국·업계 노력에도 지난해 1.9% 늘어 3만9610건
소비자 "민원 걸어야 보상금 커진다" 의식 확산 탓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 민원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오히려 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3년 보험 민원은 3만9610건으로 전년도인 2012년 3만8882건에 비해 1.9%(728건) 늘었다.

생명보험 민원은 1만8093건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4.7%(851건)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지난 2013년 1분기 4457건, 2분기 4380건, 3분기 4595건, 4분기는 4661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민원이 급증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전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2만1517건으로 2012년 2만164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5593건, 2분기 5820건 늘었으나 3분기 들어 6435건이나 줄어들었고 4분기는 131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최근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이루 오히려 분쟁이 늘고 있어 업계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민원을 통해야만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보험 상품 해약 환급금 받는 방법 등의 글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이 원래 민원이 많은 금융 분야인데다가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소비자들 간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올해 '민원 건수 공시기준 표준화' 등 민원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민원 감축 부진 회사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민원이 증가한 보험사에 관련 업무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민원 감축 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3월 말 민원 평가에서도 목표 감축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최고고객책임자(CCO) 또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박성훈기자 pjw80@metroseoul.co.kr

봄 출시족 유혹하는 니콘 'D4S'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홍보도우미들이 니콘이미징코리아의 차세대 플래그십 FX포맷 DSLR 카메라 D4S를 선보이고 있다. 니콘 D4S는 다음달 6일 정식 예정이다.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센트로엘'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위례 올해 '분양 마수걸이' 대박

현대엠코 '○○ 센트로엘' 12대 1 경쟁 1순위 마감

봄철 분양 시장 성수기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신규 공급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 올해 첫 분양 스타트를 끊는 단지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첫 분양 단지의 청약 결과에 따라 후속 분양 단지들의 성적까지 좌우될 수 있어서다.

예컨대 앞서 분양한 아파트의 성적이 좋을 경우 후속 단지까지 분양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첫 분양부터 실패하면 뒤이어 나오는 단지들도 줄줄이 미분양이 나는 식이다. 이에 분양포문을 여는 건설사는 해당 단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홍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위례신도시 첫 분양단지 현대엠코 '엠코타운 센트로엘'이 평균 12대 1로 전 타입 1순위 마감하며 위례의 분양 불패 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위례신도시는 그간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마지막으로 공급됐던 '부영 사랑으로'가 유일하게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하면서 흥행 분위기가 한 풀 꺾인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았다.

특히 올해 공급되는 물량이 송파권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성남·하남권역에 몰려있던 터라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이번 '엠코타운 센트로엘'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역시 위례라는 분위기 확산과 함께, 후속 물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대우 현대엠코 이사는 "올해 위례 첫 분양이자 엠코타운 브랜드로는 마지막 분양이라 공간감, 채광·환풍 등을 극대화한 평면을 선보였다"며 "최고 상품을 선보이고자 한 달여 전부터 모델하우스를 짓고 전문가와 주부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단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견본주택을 개관할 반도건설도 동탄2신도시 첫 공급을 앞두고 보다 진화된 상품 구성을 선보일 계획이다. 반도건설은 앞서 계약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1~2차' 계약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평면 마감재, 단지구성 등을 업그레이드 한 것.

또 단지 내 부속 건물로나 여겨지던 커뮤니티시설을 별동으로 배치하고, 입주민들이 운동이나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신리천 조망이 가능하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김정호 반도건설 홍보팀장은 "아무래도 동탄2신도시 올해 첫 단지인 만큼 우리 단지를 시작으로 청약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분양에 나서고 있다"며 "릴레이 소통 콘서트로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금융교육' 손짓

KB·신한·우리은행 진행

주요 은행들이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금융 교육 대상을 확대해 금융 문맹 퇴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KB국민은행은 지난 2012년 사내 직원들로 구성된 경제·금융교육 전담 봉사단인 'KB국민은행 희망키움 경제교육봉사단'을 발족했다.

어린이·청소년과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금융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대학생 경제·금융 교육 봉사단'도 신설해 지난해 7월부터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단원인 대학생은 학자금대출자 등으로 선정해 재능기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기당 1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선문적인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다양한 미션을 활용한 체험을 통해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의 개념을 교육하는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매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총 37회에 걸쳐 2474명이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위해 '신한은행 청소년 금융교육센터' 광화문 캠퍼스'를 개관했다. 이곳은 영업점과 동일한 은행 영업장과 교육장을 갖추고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은행 거래를 실제 체험해볼 수 있도록 꾸몄다. 금융 역사부터 미래 금융까지를 한눈에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대학생 금융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제9기 우리은행 금융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아 행사에서 대학생 100여 명에게 금융 지식과 상품 개발 과정, 금융권 취업 전략 등 정보를 제공했다. /김은지기자

와! TT쿠페 각선미 '제네바 男心' 유혹

다음달 7일 개막 '제네바 모터쇼' 신차 리스트 살짝 공개

84회째를 맞은 2014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현지시간 다음달 7~17일)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가 업체들의 신차 출품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먼저 **아우디**는 신형 TT를 공개한다. 3세대로 진화한 TT 쿠페는 스케치를 통해 먼저 공개됐는데 부드러운 2세대에 비해 각을 살린 외모가 돋보인다. 특히 날카로운 헤드램프는 A7을 떠올리게 만든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아우디의 캐릭터적인 싱글 프레임으로 단장했고, 공기 흡입구가 새롭게 디자인됐다. 이러한 변화는 미드십 슈퍼카인 R8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아우디 고유의 4개의 링 엠블럼은 라디에이터 그릴 위쪽에 장착됐다. 보닛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클램셸(조개껍데기 모양) 타입으로 열린다.

휠 아치는 구형보다 커졌고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강조됐다. 리프트백 스타일의 뒷모습은 2세대와 마찬가지다. 앞뒤 램프에는 LED 램프를 넣어 구형보다 돋보이는 외관을 완성했다.

쌍용차는 콘셉트카 'XLV(eXciting smart Lifestyle Vehicle)'를 공개한다. 쌍용의 디자인 철학 '네이처 본 3모션(Nature-born 3Motion)' 중 생동감 있는 자연의 움직임(Rhythmical Motion)을 모티브로 역동성과 리드미컬한 스타일링을 구현한 'XLV'는 기존 'XIV' 시리즈의 스타일링을 계승하는 한편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 더욱 진화했다.

전면부는 최적화된 비례 배분을 통해 날렵하면서도 넓은 느낌을 주는 한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안전을 고려한 매트릭스 LED 타입의 AFLS(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헤드램프를 적용했다.

(위부터 시계방향) 아우디의 신형 TT쿠페, 포드의 신형 포커스, 쌍용자의 콘셉트카 XLV

실내공간은 비상하는 새의 날개를 모티브로 넓은 공간감과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루프 글라스의 내부 미러자를 조절해 차내 광량을 원하는 대로 연출할 수 있는 스마트 루프(Smart Roof)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포드는 새롭게 디자인한 포커스 해치백과 왜건을 공개한다. 포커스는 유럽에서 폭스바겐 골프와 선두 자리를 다투는 인기 모델이다. 새롭게 다듬은 앞모습은 애스턴 마틴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는 최근 포드의 새로운 패밀리룩이기도 하다. 엔진은 기존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1.5ℓ 가솔린 에코부스트 엔진과 1.5ℓ 디젤 엔진을 추가한다.

시트로엥은 소형차 C1의 마이너 체인지 모델을 공개한다. 헤드램프와 방향지시등을 분리한 독특한 디자인이 눈길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은 골프 GTE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차는 148마력의 1.4 터보 엔진과 101마력의 전기모터가 결합됐다. 통합 출력은 201마력이고 주행 가능 거리는 882km에 이른다. 폭스바겐 측은 배터리 수명을 16만km까지 보증하므로 보유 기간 동안 걱정 없이 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illegible] ferrari@metroseoul.co.kr

팬택 다시 워크아웃

재무구조 개선위한 선택

연이은 적자 속에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팬택이 결국 2년2개월 만에 또다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한다.

팬택은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무적 건전성을 개선함으로써 중장기적 생존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내 3위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은 2007년 4월 경영 악화로 인해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고강도 구조조정 및 17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하며 4년8개월 만인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바 있다.

이번에 팬택이 또다시 워크아웃을 추진한 데에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중장기적인 생존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마케팅 강화, 신기술 연구개발(R&D) 역량 제고에 필요한 외부 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팬택은 이미 지난해 9월 말 선제적으로 고강도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며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국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해외 사업은 수익성 위주로 재편했다. 아울러 수익성이 보장되는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 재편에 맞춰 운영 인력의 30%를 축소했다.

다만 팬택은 이 같은 긴축경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영업적자 300억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팬택은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이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 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팬택 관계자는 "이번 워크아웃은 팬택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 외부 상황도 팬택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llegible]

빚더미 공기업 임원들 차량은 '3000cc'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이 부채 감소를 이유로 신규 채용은 줄이면서 정작 소속 임원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대형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 채용 예정 직원 수는 총 434명으로 지난해 571명보다 24.0%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7명을 뽑은 LH는 올해 신규 채용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감정원이 61명에서 30명으로 50.8%, 대한지적공사가 109명에서 60명으로 44.9% 축소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도 작년 251명에서 220명으로 12.3% 줄였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 6명(54.5%↓), 한국공항공사 3명(2.4%↓) 등도 전년보다 채용 규모를 감축했다.

이에 반해 이들 기관들은 소속 임원에게는 3000cc 이상의 대형 차량을 제공하고 있었다. 앞서 2012년 7월 국민권익위에서는 '민간부정부의 공용차량 관리 운영'에 따른 장관 3300cc, 차관 2800cc 기준을 참조, 전용 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하도록 권고를 내린 바 있다.

/[illegible]

골프 철 멋 나겠네 토탈골프문화기업 골프존이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골프 연습 전용 시뮬레이터 'GDR'을 공개했다. /뉴시스

자사주 사는 재벌 2.3세들

올해 들어 대기업 2, 3세들이 줄줄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지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자녀인 박주형씨는 이달 들어 17~21일 네 차례에 걸쳐 회사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 박씨의 보유 지분은 12만4375주(0.41%)로 늘었다.

금호가는 원칙적으로 남성 중심의 상속을 고수하고 있으나 박주형씨는 여자로서 처음으로 박 회장 외 특수관계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효성그룹 3세들도 그룹의 지주사 격인 효성 지분을 경쟁하듯 늘리고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주식을 매입해 보유 주식이 349만3803주(9.95%)로 늘어났다.

삼남인 조현상 효성 부사장 역시 지난 6일 장내 매수에 나서며 지분을 322만2776주(9.18%)로 늘렸다.

의류업체인 신원의 2세들도 활발하게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박성철 신원 회장의 차남인 박정빈 부회장은 보유 주식 수를 19만1430주(0.30%)로 끌어올렸다.

박 부회장의 동생인 박정주 부사장도 현재 보유 지분을 25만7000주(0.41%)까지 늘렸다. /[illegible]

신문처럼 빵도 "배달이오"

e커머스 맞춤형 진화… 큐레이션 서브스크립트 서비스 눈길

직장인 이서연(26)씨는 매달 예쁘게 꾸며진 박스를 받는다. 상자 안에는 5~6종의 화장품이 들어있는데 하나같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들이다.

가끔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는 상품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선호하는 아이템을 알 수 있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아 만족하고 있다. 특히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작은 용기에 담긴 제품을 쓸 수 있는 데다 마음에 들면 대용량 제품을 싼값에 살 수 있다.

이씨는 "내 돈을 내기는 하지만 매달 선물받는 기분도 좋고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다. 예전 주부 사원들이 하던 방문 판매의 첨단 버전을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커머스가 이젠 맞춤형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로 진화했다.

이는 신문이나 우유를 집으로 배달하듯이 원하는 물건은 물론 개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할인 이벤트를 접목한다. 이른바 큐레이션 서브스크립트 모델이다.

미미박스의 뷰티 정기 패키지 박스

대표적인 브랜드가 2012년 2월 국내 최초의 뷰티 서브스크립션 기업 미미박스다. 스킨케어, 향수, 메이크업, 라이프, 푸드, 패션 등 총 6가지의 카테고리에서 900여 개 제품을 팔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회원 수는 23만명, 하루 평균 신규 회원 등록은 1000명 수준이다. 설립 2년차인 지난해 5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헤이브레드'는 우수한 맛과 품질을 갖췄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네 빵집의 제품을 매일 수도권 전역으로 배달한다.

제빵 장인이 만들고 전문가가 인정한 빵을 매일 아침 빵집에서 직접 받아 재포장해 신선식품 전문 택송 업체를 거쳐 당일 배송한다.

디자인 제품 전문 큐레이션 서비스 '미스터문'은 사무용품, 주방용품, 문구, 가구, 액세서리 등 여러 제품을 매일 선보인다.

세계 각지에서 제작된 제품을 MD가 엄선해 한정된 시간에만 공개하며 해외 직접 구매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과일 최고경영자(CEO)로 유명한 조창관씨가 운영하는 유기농 과일 큐레이션 업체 '올프레쉬', 식품 전문 큐레이션 몰 '명품식탁' 등도 이름을 날리고 있다.

/채신화기자 csh@metroseoul.co.kr

'자이나 미세먼지' 잡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기승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5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백화점 가전매장에서 고객들이 공기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공기청정기는 내부 필터를 통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걸러준다. /현대아이파크몰 제공

삼성생명, 베이징에 57층 규모 빌딩 세운다 25일 열린 삼성생명 중국 베이징 오피스 빌딩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이 빌딩은 높이 250m의 지상 57층, 지하 6층, 연면적 16만7500㎡(5만673평)의 초대형 규모로 신축되며 2016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삼성생명 제공

이동 3사 최소 45일 '사업정지'

영업정지보다 센 징계 전망

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데 대해 최소 45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 3사에 30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건의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관련, 방통위가 제시한 제재보다 강력한 처분을 검토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통 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일수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1일 이통 3사에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제출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르면 다음달 12일께 이통 3사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내려지는 사업정지 처분은 기존 영업정지 처분보다 기간도 길고, 더욱 강력한 형태로 내려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작년 해외직구 10억 달러 돌파

소비재 수입액의 1.8% 규모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오는 소비 형태를 뜻하는 일명 '해외 직구(직접 구매)'가 소비 시장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과 이혜림 선임연구원은 25일 '해외 직구 규모 아직 작지만 소비 시장 장벽 허물어지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수입 의존도 자체는 높지만 소비재 가운데 수입품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해외 직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재는 의류와 가전 제품 등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재화를 뜻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1년 1300만 달러로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0.07%였던 해외 직구 금액은 지난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8% 수준이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수입품 가운데 원자재 비중은 79.8%며 소비재는 9.8%에 그친다.

연구진은 "해외 직구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환불·교환, 상품 사후 서비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삼성전자 협력사 10곳 새로 선정

범진아이앤디·에이테크솔루션 등 '2014 강소기업'

삼성전자가 '2014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0개 협력사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5일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최병석 상생협력센터 부사장, 10개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소기업 선정식을 실시했다.

'올해의 강소기업'은 삼성전자가 협력사 가운데 글로벌 부품업체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제도로, 국내 부품·설비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협력사는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외 신용도와 브랜드 등 위상이 강화되고, 삼성전자의 지원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협력사 중 '강소기업 후보사'를 선발해 자금, 기술, 인력 등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차별화된 기술력과 세계시장 지배력, 제조 역량 등을 평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14개 협력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45개 후보사 중 범진아이앤디, 에이테크솔루션, 파버나인, 동양이엔피, 디에이피, 멜파스, 이랜텍, 케이씨텍, 테라세미콘, 브로콜리 등 10개사가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선정된 10개사에 306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개발·구매·제조기술 관련 내부 전문가와 외부 컨설팅 전담 인력을 파견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10개사의 매출은 2011년 2조5300억원에서 2013년 3조7060억원으로 46%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 14개사, 올해 10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후보사까지 포함해 59개사에 현재까지 2035억원을 지원했고, 내년까지 50개사의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ksyun08

글로벌 앱 시장 70조원 규모로 성장

글로벌 앱 시장 규모가 지난해 70조원대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월 소득이 500달러(약 51만원) 미만인 앱 개발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시장조사기관 '앱체 비전모바일'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앱 시장 규모는 680억 달러(약 73조원)로 추산됐다.

시장 규모는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앱 개발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자 가운데 월 소득 수준 500달러 미만에 속하는 소위 '앱 빈곤층'은 지난해 60%에 이르렀다. 아예 수익을 내지 못하는 앱 개발자도 16%나 됐다.

월 5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발자 비율을 운영체제(OS)별로 보면 iOS가 54%로 가장 높았다. HTML5 개발자는 41%로 2위, 안드로이드가 38%로 뒤를 이었다. 윈도8 OS에선 83%가 앱 빈곤층에 속했다. /박성훈기자

'반값 홍삼전쟁' 2라운드 막 올랐다

이마트 내일부터 PL 파우치 타입 판매 · 대형마트·전문업체 경쟁 새 국면

반값 홍삼 제품을 출시해 '홍삼전쟁'에 불씨를 댕겼던 이마트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자체상표(PL) 상품으로 파우치 타입인 '6년근 홍삼추출액'과 '6년근 홍삼진액'(사진)을 판매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와 KGC인삼공사·한삼인 등 기존 홍삼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던 업체들과의 경쟁 구도가 새 국면을 맞으면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가 지난해 10월 종근당건강과 함께 자체상표를 달고 홍삼정을 출시하며 포문을 연 이후 대형마트 3사가 잇따라 홍삼 제품을 출시하며 이른바 '홍삼 전쟁'이 본격화됐다.

당시 이마트는 '홍삼정'을 9만9000원에 판매해 이번달 중순까지 총 5만 개(50억원)를 판매했다. 홈플러스도 지난해 11월 '홍삼정 지(知)'를 9만원에 선보였다. 당시 4500개가 이틀 만에 완판됐다. 같은 해 11~12월 5000개씩 추가 입고된 물량이 1주일 만에 동나는 등 지난 1월 말까지 약 2만4000여 개가 판매됐다.

롯데마트도 지난달 17일부터 '통큰 홍삼정'을 9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제품은 홍삼근 비율이 75%로 다른 마트 제품보다 5%포인트 더 높고 홍삼 품질의 기준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함량은 6mg/g이다. 가격은 240g에 9만원으로 같은 무게인 이마트의 '반값 홍삼'보다 9000원 저렴하고, 홈플러스 '홍삼정 지(知)'와는 같게 했다.

이들 대형마트들이 홍삼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관장'으로 대표되는 KGC인삼공사의 제품이었다.

이번에도 이마트 측은 자사의 '홍삼추출액'의 가격이 7만5000원으로 정관장 홍삼추출액보다 50% 저렴하며 '홍삼진액'은 4만9000원으로 정관장의 홍삼톤 마일드 보다 35% 이상 저렴하다고 노골적으로 비교했다. 게다가 홍삼추출액의 고형분 함량은 2.0% 이상으로 정관장 제품과 동일하지만 50%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는 광고를 했다.

이마트가 홍삼정과 같이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대리점 관리비용, 판촉비용 등 중간 유통비용을 없애고, 유통업체와 제조사가 함께 자체 마진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반값 홍삼정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구매까지 못했던 고객들까지 늘어나면서 홍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같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대형마트와 전문 업체 간의 경쟁 분위기를 반기는 상황이다.

/정영일기자 ornus@metroseoul.co.kr

CF에 품격 입혀라

유통업계 프리미엄 콘셉트 광고에 집중

최근 유통업계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TV CF광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소비를 선도하고 브랜드 가치를 견인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는 화장품·스마트폰·커피 등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제품의 프리미엄 콘셉트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품격 담은 광고에 전념하고 있다.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된 고품격 이미지와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품격 있는 이미지의 톱 모델을 캐스팅해 이들을 통해 제품의 프리미엄 가치를 전달하는 브랜드가 가장 많지만 제품 자체의 프리미엄 특성을 부각시키는 품격 광고도 등장해 품격 광고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캔커피 브랜드인 조지아(사진)의 경우 이달 중순 모델 비정우를 통해 자신의 일에서 인정받는 프로페셔널하고 여유로운 직장인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TV CF를 방영해 직장인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

장동건·원빈 등과 김성령·이하늬 등도 최근 화장품 브랜드 광고를 통해 고고한 품격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장동건은 '아이오페 맨 바이오 에센스'의 '피부 컨디셔닝' 편 CF에서 품격 있는 미중년의 포스를 뿜내며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원빈은 비오템의 '포스 수프림 안티에이징 세럼' 광고를 통해 원조 꽃미남 배우의 품격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

미스코리아 선후배인 김성령과 이하늬 등은 슈에무라와 시세이도의 새 TV CF를 통해 여신의 품격 포스를 발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영현의 '베가 시크릿' 광고도 최근 브라운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품격 CF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당신의 스마트폰, 당신의 비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진 후 예의 품격 있는 보이스로 베가 시크릿의 지문인식 기능을 품격 있게 전달, 다른 스마트폰 제품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정영일기자

"40% 싼 '통큰 기저귀' 사세요" 롯데마트는 오는 27일부터 저렴한 기저귀로 유명한 업체 '디퍼스트'와 1년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시중 유명 브랜드보다 40% 정도 싼 '통큰 기저귀'를 판매한다. 신제품은 중형(62개입)·대형(52개입) 두 종류로 가격은 1만6000원, 특히 다둥이클럽 회원에게는 1만52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청소 대전' '집단장 용품 기획전' – 봄맞이 이벤트

봄이 다가오자 유통·식품업계가 봄맞이 이벤트를 시작한다.

이마트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봄맞이 청소 대전'을 진행한다. 이승헌 이마트 청소용품 담당 바이어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청소 관련 용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평소보다 물량을 20% 이상 더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7일부터 '새봄맞이 집 단장 용품 기획전'을 통해 서랍장과 옷걸이 등 100여 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다음달 6일부터는 공기청정기와 식물과 도자기 화분 등 30여 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는 '새봄맞이 원예 대전'을 연다.

식품업계는 계절 재료를 사용한 봄 음식을 선보인다. CJ푸드빌의 '계절밥상'(사진)은 봄철에 나는 주꾸미·민들레·세발나물·봄동 등으로 만든 메뉴 14종을 출시한다. '빕스'는 제주노루를 주재료로 계절 메뉴를 새롭게 내놓는다. 이랜드의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는 다음달 6일부터 딸기를 활용한 상큼한 맛의 샐러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혜인기자 hjlung0404@

'소치 특수' 모바일쇼핑 매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모바일 쇼핑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는 올림픽 기간인 6~24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모바일 거래액이 전년 동기보다 111.5%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거래 건수는 128.2% 늘었다. 온라인 거래액 역시 전년 동기보다 12.5% 상승했고 거래 건수는 21.3% 증가했다. 11번가 관계자는 "밤이나 새벽에 열린 동계올림픽 경기를 기다리거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경기를 시청하며 쇼핑을 함께 즐긴 고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혜인기자

손발저림, 척추의 SOS

디스크·관절착증 등 척추관절 질환별 증상 및 예방요령

추운 날씨에 심해졌던 손발 저림이 날씨가 풀렸는데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혈액순환의 문제로 무심코 넘길 수도 있지만 손과 발이 계속 저리다면 척추관절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바른 자세 유지하는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해

우선 허리디스크는 돌출된 디스크가 척추 신경을 눌러 생기는 질환으로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이다. 질환이 심각한 경우에는 저릿저릿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엉덩이나 다리, 발바닥에 통증이 찾아온다.

또 손 저림 증상이 심하다면 목디스크를 의심해야 한다. 흔히 목디스크는 5~6번 경추와 6~7번 경추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목이나 어깨에서 시작해 팔, 손가락까지 뻗치는 듯한 통증이 주요 증상이다. 또 어깨, 팔, 손가락의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눌리면 해당 부위 근육의 힘이 빠지고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물건을 들다가 놓치는 등 팔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도 한다.

특히 목디스크 증상은 손목터널증후군과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하지만 손목터널증후군은 손가락 및 손바닥 저림 현상이 심한 반면 목디스크로 인한 손 저림 증상은 어깨 주변과 상완, 손끝에 나타난다.

이와 함께 40대 후반부터 60대 중장년층은 척추관협착증을 조심해야 한다. 늘 시림과 저림 증상이 지속되고 보행 시 다리가 아프다면 척추관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질환은 척추가 노화되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흡연 및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균형 잡힌 식사로 근육 손상을 막아야 하며 꾸준한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또 잘못된 자세는 허리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조보영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은 "다리에 마비 증상이 느껴질 때 뒤꿈치로만 걷거나 한 발로 뛰기가 어렵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 환자들이 스스로 구별하기 어려운 손 저림 증상이 있어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롯데월드 '환상의 숲'으로 장애아 초청 25일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마련한 '잭과 아이들 특별한 새 출발' 초청 행사에서 아이들이 '환상의 숲'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장애아들의 힘찬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제공

겨울옷 벗으면 두툼한 군살 보일라

모여라! 다이어트 식품

봄기운이 돌며 여성들에게 식이요법 및 다이어트 식품이 주목받고 있다.

농심 켈로그의 스페셜K는 칼로리가 낮은 고단백 저지방 시리얼로 1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특히 여성들의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견과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동코리아의 트리플베리는 블루베리를 포함한 과일 아몬드, 캐슈넛,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등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와 씨앗을 원형 그대로 담았다.

CJ제일제당의 알래스카 연어는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에 대두유, 정제수, 정제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무색소 연어 캔이다. 훈제 연어와 달리 살코기로 구성돼 샐러드나 볶음밥 등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다.

파리바게뜨의 무설탕 식빵은 설탕이 없는 건강 빵이다.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맛을 국내산 현미, 호두로 보완해 단맛은 덜어내는 대신 담백한 식빵 본연의 풍미를 살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옷이 얇아지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유통업체들도 이에 맞춰 다이어트를 보다 효과 있게 도와주는 제품들을 잇달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봄나물 사먹기 겁나네

포근한 날씨탓 신선도 뚝 한날새 최대 2배 치솟아

최근 포근한 날씨가 계속돼 봄나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25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늦겨울에서 초봄까지 출하되는 봄나물의 가격이 한 달 새 최대 두 배까지 올랐다.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신선도가 떨어진 탓이다.

가락시장의 냉이 4kg 상등급 이번달 평균 도매가는 2만8145원으로 지난달 평균 1만4380원보다 95.8% 상승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쑥갓은 4kg에 4889원으로 지난달 평균보다 29.6% 올랐고 생바귀 4kg은 4만1132원으로 14.8% 상승했다. 열갈이배추 1.5kg 상등급은 993원(13.4%), 열무 1.5kg 상등급은 953원(10.8%)으로 지난달 가격보다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봄나물은 겨울부터 3월까지 시장에 나오는데 이달부터 따뜻한 날씨가 반복되면서 신선도가 떨어져 가격이 오름세에 있다"며 "선도 저하가 빠른 엽채류다 보니 매장에서 판매하는 동안 급격히 품질이 떨어져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운기자

눈총받던 탄산음료 '웰빙음료'로 변신

제로칼로리·무카페인 등 건강에 신경 쓴 제품 늘어

신학기를 앞두고 에너지음료 및 커피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가 학교 매점에서 사라지면서 건강 콘셉트의 웰빙형 탄산 음료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부터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함량이 ㎖당 0.15ｇ 이상)의 학교 매점 및 주변 우수 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TV 광고가 제한되는 등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이로 인해 건강한 식음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탄산음료는 기존 콜라와 사이다 등이 가진 정크푸드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제로칼로리, 무카페인, 무당류 등 건강한 제품 성분을 강조한 콘셉트의 웰빙형 탄산음료로 변하고 있다.

현대약품의 비타민 C 스파클링 음료 '프링클'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 500㎎을 함유한 데다 제로칼로리 제품이어서 고열량 섭취에 민감한 학생이나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

웅진식품의 '독 보리사이다'는 100% 국산 보리를 사용한 무카페인 탄산음료다. 보리의 구수함과 탄산 청량감이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보리사이다다.

화이트진로음료에서 판매하는 '하다 화이버 콜라'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식이섬유 성분이 함유된 음료다. 이 제품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중성지방 상승을 억제해 체중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인삼 드링크인 마스터링크는 인삼이 가진 맛과 효능은 그대로 살리되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탄산을 첨가한 퓨전 음료다. 기존의 탄산음료와는 달리 고카페인이나 고당분,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 어린 아이들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황정일기자 [illegible]

듀퐁 클래식 '기프트 세트' 실속

신상품 구매시 10% 할인도

프랑스 파리의 감성을 표현한 S.T 듀퐁 클래식에서 브랜드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T 듀퐁 클래식은 창립 12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아이템을 실용적인 가격에 제안하는 12만원 기프트 세트를 출시한다. 또 신상품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주며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행커치프 2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구매 고객 중 멤버십 가입 고객에 한해서는 경품 이벤트를 추가로 실시한다. 1등 6명에게는 프랑스 작수인 명품 브랜드 S.T 듀퐁의 '데피 벨티'을, 12명에게는 '데피 볼펜', 3등 24명에게는 S.LDUKO 15만원 상품교환권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합리적인 가격의 패키지 구성과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날 수 있는 S.T 듀퐁 클래식 12주년 프로모션은 다음달 9일까지 전국 백화점 S.T 듀퐁 클래식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혜운기자

스트레스 풀어야 예뻐!

기능성 뷰티 제품의 진화 긴장 풀어주는 아이템 다양

최근 긴장을 풀어주고 심신의 안정을 돕는 뷰티 아이템들이 인기다. 신체 밸런스를 맞춰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스트레스 프리' 제품들이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20~30대 여성들은 불규칙한 영양 섭취와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이처럼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피부 역시 망가지기 마련이다. 시세이도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 세포가 움츠러든다는 사실을 발견, 피부 방어력을 높여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아줄 '이부키 리파이닝 모이스춰라이저'를 선보였다. 시세이도만의 '형상 기억 세포 기술'이 세포를 건강하고 바르게 배열해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다.

야근이 잦은 직장인들의 경우 신체 리듬이 무너지기 쉽다. 이때 은은한 아로마 향을 맡으면 긴장된 몸이 이완되고 흐트러진 신체 밸런스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딥티크의 '베이 아이글라스 디퓨저'는 장미 향과 블랙 커런트 잎 향이 잘 어우러져 있어 스트레스에 시달린 심신을 달래준다. 모래시계형 구조라 중간 필터에서 향이 퍼지게 만들어져 있으며, 독특한 외관 덕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겨울철 건조한 공기는 정전기를 만들어 모발을 엉키게 만든다. 르네휘테르 '오카라 래디언스 헤어 스프레이'는 식물성 콩 단백질 성분이 푸석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윤기 있게 가꿔준다. 양이온 복합체는 엉키는 머리를 풀어주고 더불어 UV 필터가 자외선을 막아준다.

스트레스로 뭉친 어깨 근육은 반신욕으로 풀어준다. 반신욕을 할 때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38~40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향'을 더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욕조에 물을 받은 뒤 샤넬 No.5 '인텐스 배스 오일' 몇 방울 떨어뜨리면 부드러운 오일 텍스처는 물론 샤넬 고유의 퍼퓸 향을 만끽할 수 있다.

반신욕을 마친 뒤 가벼운 마사지를 병행하면 스트레스로 무너진 보디 시어린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박지원기자 clw@metroseoul.co.kr

올봄 트렌치코트 '블루 바람'

전년비 90% 판매 늘어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는 최근 한 달간 봄 아이템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청마의 해답게 블루 색상의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단연 눈에 띄는 아이템은 트렌치코트. 봄철 변덕스러운 날씨에 즐겨 입는 트렌치코트는 아우터 가운데 21%의 판매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다즐링 블루·스카이 블루·민트 블루 등 다양한 블루 색상의 트렌치코트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6% 증가했다.

파란색은 평범한 스타일에 생기를 더해주는 동시에 다른 색상과 매치하기 쉬워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흰색과 코디할 경우 깔끔하면서도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올봄 블루 컬러의 인기는 일찌감치 예견됐었다. 지난해 파리·밀라노 패션쇼에서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2014년 봄·여름 컬렉션 메인 색상으로 '블루'를 사용했고, 미국의 한 색채연구소에서는 올해의 유행 색으로 '다즐링 블루'를 지목하기도 했다.

아이스타일24 최인점 MD는 "매년 봄에는 한겨울의 딱딱한 느낌을 벗어나 화려한 컬러와 패턴의 겉옷이 유행하는데 올해는 청마의 해를 기념해 블루 컬러의 트렌치코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여행자의 호텔 예약, 더 빠르게 더 싸게

여행사 홈피·앱 통해 실시간 서비스 제공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자유 여행을 선호해 숙소나 일정 등을 직접 선택하고자 하는 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사도 스마트폰 앱과 온라인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호텔 예약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에서 출시한 '익스피디아 호텔 예약 앱'은 실시간 예약, 자세한 호텔 정보, 여행 일정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앱을 통해 현재 가격 할인 중인 호텔 상품들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호텔 측의 예약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또 GPS 기능을 탑재해 언제 어디서든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을 안내해준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12월 투어팁스에서 최저가 호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익스피디아·아고다·부킹닷컴 등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100여 곳의 예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해보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투어팁스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 사이트까지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관광도 홈페이지에 '호텔 패스'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가격별 호텔 예약과 실시간 호텔 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상담원에게 호텔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롯데관광 고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호텔 추천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오는 28일까지 예약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무료 숙박권 등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정해인기자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호텔 자선 아트페어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내 100여 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2014 봄맞이 블루 호텔 아트페어'를 개최한다.

아트페어는 유망한 신진 작가들과 대중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시는 호텔 4층과 5층 객실에서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예술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아트페어에서는 미술품 경매가 함께 열리며 경매를 통한 수익금은 하트하트재단의 탄자니아 지역 실명 예방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호텔 관계자는 "이번 아트페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규모가 커졌다. 또 작품 경매를 통한 기부 활동도 이어져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쌤소나이트 '김수현 팬미팅'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히로인 김수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비즈니스 캐주얼 가방 브랜드 쌤소나이트 레드는 다음달 13일 김수현이 함께하는 2014 봄·여름 신제품 공개 자리에 고객을 초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쌤소나이트는 다음달 9일까지 전국 쌤소나이트 레드 단독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포카리스웨트 '핸드볼 음료'

포카리스웨트가 2014 핸드볼코리아리그의 공식 음료로 활동한다.

포카리스웨트는 지난 22일 열린 '2014 SK 핸드볼코리아리그' 개막식을 시작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5월 1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에게 음료와 용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기장 A보드 광고, 관객 프로모션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연은 맛있다' 매출 급증

풀무원식품은 생라면 브랜드 '자연은 맛있다'의 2013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1.9%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은 면발을 기름에 튀기는 대신 고온에서 단시간 바람에 건조시켜 일반 라면에 비해 100kcal 이상 칼로리를 낮췄으며 분말수프에는 합성첨가물을 줄이고 꽃게·오징어 먹물 등이 든 자연 재료를 담았다.

김장석 라면사업부 PM은 "올해는 전체 매출액을 550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의성' 요구 커지고 '협력' 중요성 부각

30대 그룹이 원하는 인재상' 분석 조사 결과 주목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으면 협력·소통 능력을 선보여라. 업종 변화 주도·고객 중심·봉사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유리하다.

25일 메트로신문이 취업포털 사람인에 의뢰해 30대 그룹(코참비즈 순위 기준)의 인재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2008년 조사에서는 창의성, 도전정신, 전문성 등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면 올해 조사에서는 창의·창조, 협력·소통 등 보다 구체적인 인재상을 내세운 기업들이 늘어났다.

◆창의·창조 인재상 최다=올해 조사에 따르면 삼성, SK그룹 등 18개 그룹(66.7%·복수 응답)이 회사가 찾는 인재상의 덕목으로 창의·창조를 꼽았다. 이는 2008년 창의성을 제시한 기업이 70%에 달했던 것과 비슷한 수치다.

경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차별화된 생각과 행동으로 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성과 창조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삼성그룹은 '학습과 창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SK그룹은 '창의적 문제 해결' 등을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가치 창조형 인재', 한국도로공사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인' 등 주요 공기업에서도 창의·창조는 선호하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협력·소통 새로운 키워드=협력·소통이 새로운 인재상으로 등장했다. 올 조사에서 13개 그룹(48.1%)이 인재상 키워드에 협력·소통을 올렸다. 이는 개인의 성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조직과 조화를 이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롯데그룹은 '협력과 상생을 아는 젊은이', 한국가스공사는 '믿고 협력해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 KT그룹은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인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팀원간 힘을 합쳐 성과를 이뤄낸 경험 등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람인 측은 설명했다.

◆열정·자기계발 요구하는 기업도 등장=도전(44.4%), '정직·신뢰·신의'(44.4%), '전문성'(40.7%), '글로벌 감각'(22.2%) 등도 주요 인재상 키워드에 꼽혔다. 이는 '도전정신'(50.0%), '전문성'(46.7%), '글로벌 역량'(33.3%) 등으로 나타난 2008년 조사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 조사에서는 '열정'(33.3%), '자기계발'(25.9%), '변화 주도·혁신'(25.9%), '고객 중심'(22.2%), '봉사정신·헌신·사랑·나눔·상생' 등이 새로운 인재상 키워드로 떠올랐다.

특히 분야를 넘나드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스티브 잡스형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통섭형 인재'(3.7%)를 인재상으로 선택한 기업도 등장했다. 융합적 사고를 인재상으로 제시한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이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최근 조사에서 기업 절반(47.2%)이 스펙 등 자격 조건이 아닌 인재상 부합 여부에 따라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밝혔다"며 "기업들의 인재상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원하는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재상을 미리 파악하고 그 키워드에 맞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2014 주요 그룹사 인재상 키워드

기업	인재상 키워드
삼성	열정, 창조, 소통의 가치 창조인
한국전력공사	글로벌 [illegible] 기업가형 인재, 통섭형 인재, 도전적 인재(기업 환경 [illegible])
한국도로공사	가치창출인, 변화주도인, 전문역량인
현대자동차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인재(현대차)
SK	열정, 자율, 도전, 적극적인 [illegible] 책임
LG	신념과 실행력을 겸비한 사람
롯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
포스코	세계인, 창의인, 실천인
[illegible]	최고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인재
[illegible]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상생인(고객 중심)
한국가스공사	미래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농협	시너지 창출가, 최고의 전문가, 정직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한진	[illegible]
한화	신뢰를 지키는 사람, 최고의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
KT	주인의식으로 스스로 주도하는 인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열정, [illegible]
STX	변화를 선도해나가는 전략형 STX인,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력하는 STX인
CJ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신세계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
LS	넓고 창의적이며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
동부	창의와 도전정신, 전문성, 글로벌 역량, 신뢰를 형성하고 화합
금호아시아나	신뢰하고 부지런한 사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온화하고 적극적인 사람(금호아시아나인)
대우조선해양	창조적인 인재, 열정인재, 소통하는 인재, 도전하는 인재
대림	일이 내 인생이다, 새로운 것을 찾는다, 자기 일에 으뜸이 된다
[illegible]	[illegible]
에쓰오일	회사 비전 달성에 동참할 진취적인 사람

자료: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

PPT발표, 리허설이 필요해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⑧

PPT 발표는 대학생뿐 아니라 직장인이 되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PPT란 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 자료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의 파일 확장자명(*.ppt)에서 유래했다. 발표 내용을 파워포인트에 입력 후 화면에 띄워 말하는 이 스피치는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세련된 발표 모습을 계기로 큰 관심을 받았다.

W스피치의 도움을 받아 수강생들과 함께 실제 PPT 발표를 진행해봤다. 미리 마련된 PPT 자료를 바탕으로 30분 동안 발표 준비를 한 뒤 10분 스피치를 하는 방식이었다.

PPT 발표를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점은 'PPT 화면에 끌려가지 말자'였다. PPT 화면은 자신의 발표를 돋보이게 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스피치의 주인공은 발표자 본인이지 PPT 화면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발표 내내 PPT 화면을 응시하거나 자료에 적힌 텍스트를 읽기 급급했다. 되도록 발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 청중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자신 있어 보이고 안정적인 인상을 준다.

충분한 리허설은 필수다.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입에 붙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한다. 기자의 경우 프랑스 파리의 '행정구역'에 대한 PPT 발표를 맡았는데 낯선 단어를 매끄럽게 발음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

PPT 레이저 펜은 꼭 필요할 때만 잠깐 써야 한다. 빨간색 불빛이 나오는 레이저펜은 PPT 화면에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는 형광펜 역할을 한다. 다만 레이저펜을 많이 쓰면 눈이 피로하니 2초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레이저로 밑줄을 긋거나 불빛을 빙빙 돌리는 행위도 산만해 보이니 삼가야 한다.

이 밖에 질의응답 시간을 대비해 청중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의 예상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발표자의 태도도 중요하다. 스피치 도중 머리를 쓸어 올리거나 어색해 혼자 웃는 행동은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jun 기자

성균관 유생들처럼…성대 졸업식 '고유례'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대성전에서 졸업을 알리는 고유례(告由禮)가 열리고 있다. 이날 성균관대는 고유례 후 교내 새천년홀에서 4500명의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대기업 채용 줄어 '3만4000명'

대기업 취업문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전문 취업포털 에듀스는 올해 13개 그룹의 채용 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3만3400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1년 3만3777명에서 6.9% 늘었다가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바뀐 것이다.

특히 두산그룹은 2012년 1360명에서 2013년 900명으로 33.8% 줄었다.

이어 동부그룹 22.2%(900명→700명), 현대자동차그룹 9.1%(5500→5000명), KT그룹 8.7%(2300→2100명), LG그룹 8.3%(6000→5500명) 순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들 그룹은 경영 환경이 어려운 일부 계열사가 채용을 아예 진행하지 않아 그룹 채용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년보다 채용을 늘린 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650→900명), SK그룹(2100→2500명), 효성그룹(700명→800명), 롯데그룹(2200→2400명), 이랜드그룹(1000→1200명) 등이다.

삼성그룹(9000명), CJ그룹(1600명), GS그룹(800명)은 채용 규모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취업 스터디' 앱 나왔다

취업 준비생들의 스터디 구성을 돕는 '취업 스터디' 앱이 출시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구직자들의 간편한 스터디 모집을 위한 '취업 스터디' 앱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 앱을 활용하면 주제별·지역별 카테고리 및 직접 검색 기능을 통해 희망 스터디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연락처 입력만으로도 즉시 신청 가능하다. 여기에 푸시 알림 기능을 통해 신청서 열람 및 모집 마감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달리고 또 달리고… "촬영내내 근육통 시달렸죠"

영화 '찌라시' 김강우

김강우(36)는 근성 강한 배우다. '돈의 맛' '미스터 고' '결혼전야' 등 최근 몇 년간 쉬지 않고 1년에 세 작품씩 하면서 거침없이 달려왔다. 20일 개봉한 주연작 '찌라시: 위험한 소문'(이하 '찌라시')은 그런 김강우의 연기 근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영화다.

 # 근육통 오도록 달리고 손가락 꺾이고

김강우는 극중 한번 꽂힌 것은 끝을 보고야 마는 집념을 지닌 열혈 매니저 우곤 역을 맡았다. 첫눈에 알아본 여배우 미진을 위해 거침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미진이 사설 정보지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자 실체 없는 소문의 근원을 향해 끈질긴 추격을 펼친다.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숨 돌릴 틈 없이 달리고 또 달린다. '찌라시'의 배후를 파헤치는 우곤을 위협하는 재벌가의 '해결사' 차성주(박성웅)에게 발각될 때마다 잔인하게 손가락이 하나씩 꺾이는 고초까지 겪지만 추격을 멈추지 않는다.

> 여배우 파멸 소문 추격전
> 연기근성 제대로 보여줘
> 이젠 가벼운 역할 하고파
> ”

"달리는 장면을 주말마다 한 달에 걸쳐 찍었는데 그때마다 다리에 알이 뱄어요. 한 번에 몰아서 찍으면 좋았을 텐데 알이 풀릴 만하면 찍는 것을 반복해서 더 고생했죠. 막상 촬영한 분량의 3분의 1밖에 화면에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쉬워요. 손가락이 꺾이는 장면은 컴퓨터그래픽(CG)이랍니다."

극중 무자비적인 폭력을 가했던 박성웅에 대해 "성웅 형이 날 만날 때면 '오늘 또 악의 기운이 충전된다'면서 겁을 주는 농담을 하곤 했다. 무서워 보이지만 실은 정도 많고 유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 "찌라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극중 연예인 매니저로 온갖 소문을 다 알고 있지만 실은 찌라시는 본 적이 없다.

"친구들이 찌라시에 대해 물어봤다가 내가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인 줄 아는데 오히려 배우들이 더 몰라요. 본다고 해더라도 들려 보지 않아요. 주중 찌라시의 95%는 가짜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누구보다 그 허구성을 잘 아니까요."

그는 "찌라시는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그랬다'로 끝나기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 취약하다. 그러나 정보가 돈인 세상이기 때문에 찌라시는 많은 병폐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영화를 선택한 것은 영화가 찌라시의 자극적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과정과 재벌가의 권력 개입 등 그 이면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이었다.

"처음 제목만 들었을 땐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주의 영화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런 담론스러움이 재미있었고, 재벌가의 권력 개입이 드러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죠. 그러나 이 영화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그냥 즐길 수 있는 상업영화예요."

 #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출연"

'찌라시'를 선보이자마자 비난가 개봉 예정인 '카트' 촬영에 들어갔다. 이 영화에서는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을 위해 노조위원장 역할을 하는 정의로운 인물을 연기한다.

김강우는 "극의 배경이 마트라서 촬영장에 갈 때마다 여자분들이 50~100명씩 있다"면서 "'찌라시'를 포함해 그동안 주로 무거운 인물을 연기했더라 향후 몇 년간 가벼운 캐릭터도 연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예계 대표적인 다작 배우인 그는 벌써 또 다른 차기작을 구상 중이다.

"다작은 진짜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다. 점점 해보지 않은 캐릭터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커져서 작품을 많이 하고 싶다.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역할도 안 해봤으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연기 열정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같은 배우가 드물지만 할리우드에선 대부분이 작품을 많이 해요. 한평생 배우를 할 거라면 지금처럼 연기가 재미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보고 싶어요."

/박정환기자 jal0427@metroseoul.co.kr

사진/홍한연(이미지)·디자인/박은지

소녀시대 '미스터미스터' 음원 올킬!

국내 실시간 차트 1위 올라… 해외서도 관심 뜨거워

소녀시대(사진)가 네 번째 미니앨범 '미스터미스터'로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4일 오후 5시 멜론·지니·네이버 뮤직·다음 뮤직·엠넷닷컴·소리바다 등 8개 국내 음원 사이트에 '미스터미스터' 앨범의 전곡을 전 세계에 동시 공개했다. 음원 공개 직후 타이틀곡 '미스터미스터'는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했고 '굿바이' '백허그' '유로파' 등 나머지 수록곡 역시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소녀시대 새 앨범에 대한 관심은 해외에서도 뜨겁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K-팝 차트에서도 소녀시대의 '미스터미스터'가 1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수록곡들도 모두 10위 안에 들었다.

또 아이튠즈에도 공개된 이번 앨범은 일본·베트남·태국·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홍콩 등 아시아 7개 지역 앨범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북미 지역 아이튠즈에서도 6위에 오르며 소녀시대의 글로벌한 인기를 입증했다.

이번 미니앨범에는 타이틀곡 '미스터미스터'를 포함해 발라드 '변신소녀' 등 다양한 장르의 6곡이 담겨있다.

타이틀곡은 세계적인 프로듀싱 팀 더 언더독스 특유의 R&B 사운드가 돋보이는 댄스곡으로 소녀시대가 미스터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를 담았다. 안무는 유명 안무가 질리언 메이어스가 맡았다.

앞서 '미스터미스터'는 지난해 발표했던 정규 4집 '아이 갓 어 보이' 이후 약 13개월 만의 컴백곡으로 공개 전부터 팬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소녀시대의 새 미니앨범은 오는 27일부터 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컴백 무대는 다음달 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장동건 '딸바보' 예약

4년만에 둘째 득녀

배우 장동건(사진 왼쪽)·고소영(오른쪽) 부부가 25일 딸을 출산했다.

장동건의 소속사 SM C&C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소영이 25일 오전 10시30분 제왕절개로 득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이 가족끼리 조용히 진행돼 아기의 이름은 물론 대명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2010년 5월 결혼한 이들은 그해 10월 첫째 아들 장준혁군을 얻은 후 4년 만에 둘째 딸까지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앞서 장동건이 미국에서 영화 '우는 남자' 촬영을 마무리하고 귀국하면서 고소영의 출산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장동건 측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출산을 앞둔 고소영의 곁을 지키기 위해 촬영 스케줄을 조정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는 남자'는 올해 개봉 예정이며 장동건은 고소영과 육아에 전념하며 차기작을 고를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나탈리' 정사신이 문소리 동영상?

알고보니 닮은 꼴 외모 김가연 베드신 교묘하게 편집

영화 '나탈리'(사진)의 김가연과 이성재의 베드신이 '문소리 동영상'으로 둔갑해 유포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배우 문소리·이성재 금방 삭제될 것 같으니 빨리 보세요' '조만간 개봉된다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지 않을까 싶네요' 라는 제목의 불법 동영상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

이 영상은 2010년 한국 최초 3D 에로영화 '나탈리'의 한 장면으로 영화 속 다양한 베드신이 교묘하게 편집돼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베드신 영상은 김가연과 문소리의 닮은꼴 외모를 악용한 것에서 비롯됐고 '나탈리'에 문소리는 출연하지 않았다.

문소리의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이미 경찰에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문소리 소속사 측은 "이전부터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연하지도 않은 영화의 편집 영상이 문소리 동영상이라며 떠돌아 14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유포자를 찾게 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경 대응할 입장을 전했다.

/전효진기자 [illegible]

박지성과 결혼 앞두고 김민지 아나운서 퇴사

축구선수 박지성(33·PSV 에인트호번)과 결혼을 앞둔 SBS 김민지(사진) 아나운서가 퇴사한다.

SBS에 따르면 퇴사 이유는 결혼 준비 때문이며 다음달 7일자로 회사를 그만둔다. 김 아나운서는 2011년 박지성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박지성의 아버지는 월드컵 기간을 피해 5월이나 7월쯤 결혼식을 치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0년 입사한 김 아나운서는 '풋볼매거진 골'을 진행하고 있다.

/송순호기자

동방신기 '수리수리' 티저 영상 공개

소녀시대와 동반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방신기(사진)가 신곡 '수리수리'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동방신기는 25일 유튜브 SM타운 채널, 페이스북 SM타운 페이지 등에 '수리수리'의 콘셉트를 엿볼 수 있는 티저 영상을 공개해 후속곡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수리수리'는 간결한 셔플 리듬 위에 베이스와 일렉 기타, 브라스 사운드를 얹은 멜로디가 인상적인 솔 펑크 장르의 곡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주문에 걸리듯, 점점 빠져드는 마력 같은 느낌이라는 내용을 가사에 담아 색다른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정규 7집 리패키지 앨범에는 '수리수리'와 유노윤호의 솔로곡 '11월', 그리고 최강창민의 솔로곡 '헤븐스 데이' 등 3개의 신곡이 추가로 수록됐다. 신곡 음원은 27일 낮 12시에 공개된다. 동방신기는 28일 KBS2 '뮤직뱅크'에서 '수리수리'의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

한편 24일 새 앨범을 발표한 소녀시대가 다음달 6일부터 활동에 들어 SM엔터테인먼트의 남녀 간판 그룹이 함께 활동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송순호기자 [illegible]

'가시' 장혁
마성의 매력 체육교사

'인간중독' 송승헌
금기된 사랑 빠진 대령

'마담뺑덕' 정우성
위험한 연애하는 교수

옴므파탈 스크린 점령

올해 극장가는 '옴므파탈'이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영화 '가시'의 장혁, '인간중독'의 송승헌, '마담 뺑덕'의 정우성 등 미남 스타들이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남자로 분해 여심을 뒤흔들 채비를 하고 있다.

4월 개봉 예정인 서스펜스 멜로 '가시'에서 장혁은 평범한 일상에 찾아온 겁 없는 한 소녀에게 잠시 설렘을 느끼지만 그로 인해 지독한 집착에 시달리는 체육 선생 준기 역을 맡았다.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는 이번 영화를 통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캐릭터로 지금껏 보지 못한 감성 연기를 선보인다.

올해 개봉을 앞둔 '인간중독'은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하 관계로 이뤄진 군 관사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럽고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송승헌은 부하의 아내와 금기된 사랑에 빠지며 흔들리는 대령 김진평으로 분한다. 제대 후 처음으로 베드신에 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성은 고전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파격 멜로 '마담 뺑덕'에서 위험한 사랑에 휘말려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사랑에 집착하는 대학교수 역을 연기한다. 지난해 '감시자들'을 통해 '비주얼 악역'으로 각광받은 그는 기존에 볼 수 없던 옴므파탈 연기를 펼친다.

/탁진현기자 tak0417@metroseoul.co.kr

'소녀' '한공주' 佛 아시아 영화제 간다

영화 '소녀'와 '한공주'(사진)가 제16회 도빌아시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최진성 감독의 '소녀'는 말실수로 친구를 죽게 한 소년과 잔혹한 소문에 휩싸인 소녀가 서로의 깊은 상처를 알아보면서 위태롭고 아픈 사랑에 빠져들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지난해 11월 개봉해 국내외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배급사 CJ E&M에 따르면 브루노 비르드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독창적인 소재와 힘 있고 설득력 있는 연출력으로 한국 영화가 국경을 넘어 존재해야 할 철학과 필요성을 제시해준다"며 초청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감독의 '한공주'는 예기지 못한 사건으로 친구를 잃고 전학을 간 소녀의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CGV무비꼴라쥬상, 로테르담영화제 타이거상, 마라케시영화제 금별상 등을 수상했다.

도빌아시아영화제는 프랑스 내의 대표적인 아시아 영화제로 다음 달 5~9일 프랑스 도빌에서 열린다. 지난해 배우 유지태의 첫 장편 연출작 '마이 라띠마'가 대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탁진현기자

마동석 이번엔 종잡을 수 없는 광기남

김기덕 감독 '일대일' 캐스팅

배우 마동석(사진)이 김기덕 감독의 신작 '일대일'에 캐스팅됐다.

'일대일'은 김기덕 감독이 '뫼비우스' 이후 새롭게 연출하는 작품으로 영화 내용은 극비로 한 채 진행 중이다.

마동석과 김기덕 감독의 만남은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조합이기에 더욱 호기심을 자아낸다. 자신의 세계관을 인물에 투영하는 김기덕 감독이 마동석을 통해 어떤 캐릭터를 보여줄지 관심사다.

그간 다양한 작품과 캐릭터를 통해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해온 마동석 역시 이번 작품에서는 종잡을 수 없는 광기의 인물로 또 다른 변신을 보여준다는 전언이다. 마동석은 앞서 김기덕 감독이 제작한 영화 '배우는 배우다'를 통해 그와 인연을 맺었다.

'일대일'은 '피에타'로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던 김기덕 감독이 오는 5월 개막하는 제67회 칸 국제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기에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편 영화 '일대일'은 마동석을 주인공으로 확정 짓고 다른 배역을 캐스팅 중이다. /장병호기자 yoa@

식스팩 전사들이 돌아왔다

액션 블록버스터 '300: 제국의 부활' 내달 6일 개봉 – 최대 해전 살라미스 전투 다뤄

다음달 6일 개봉을 앞둔 '300: 제국의 부활'(사진)이 또다시 식스팩 열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2006년 개봉 당시 근육질 배우들의 등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300'의 속편인 이 영화는 전편에 이어 이번에도 배우들의 탄탄한 몸매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그래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완벽한 배우들의 근육은 실제 그리스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 촬영 전 수주에 걸쳐 받은 강도 높은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졌다. 전사로 출연하는 배우들 전원은 전편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식이요법과 극한의 육체 훈련을 병행했다.

마치 실제 군대처럼 복합 동작과 들어 올리기, 던지기 등 집중적인 훈련으로 전투 장면에 대비했고 맞춤 식이요법으로 몸무게를 줄이거나 혹은 늘려갔다. 역사 속 최강 전사가 될 때까지 훈련을 지속한 결과 배우들은 영화 속에서 모두 웃통을 벗고 간소한 차림으로 등장해 가장 아름다운 남성미를 선보인다.

여러 배우들 중 특히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왕 역할을 맡은 로드리고 산토로는 처음에는 몸이 볼품없을 정도였지만 촬영 전부터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일절 끊고 강행군의 특훈을 받은 결과 캐릭터에 걸맞은 완벽한 몸으로 거듭났다.

이 영화는 아르테지움에서 벌어지는 페르시아 해군과 그리스 해군의 전설의 전투,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해전으로 기록된 살라미스 전투를 다룬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다. 전작과 동일 시기에 일어난 전쟁을 그리면서도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게 특징이다. /박남은기자

CGV 내달 3일 아카데미 시상식 독점 중계

채널 CGV가 4년 연속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을 독점 생중계한다.

3월 오전 10시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동진 영화평론가와 김태훈 팝칼럼니스트의 진행으로 채널 CGV에서 독점 생중계된다.

명실상부 세계 최상급 권위의 영화 시상식으로 군림하고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여성 코미디언 엘런 드제너러스의 사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시상식의 꽃"인 작품상 부문에서는 '아메리칸 허슬', '그래비티', '노예 12년' 의 삼파전이 예상된다. '아메리칸 허슬'과 '그래비티'는 총 10개 부문으로 최다 노미네이트됐고, '노예 12년'은 총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돼 박빙이다.

"오스카의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통해 세 작품의 쟁쟁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어 작품상과 최다 부문 수상의 영예가 어떤 작품에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탁진현기자

박광현 '빛나는 로맨스' 합류 이진·박윤재와 삼각관계

배우 박광현(사진)이 MBC 일일극 '빛나는 로맨스'에 전격 투입된다.

25일 소속사에 따르면 박광현이 '빛나는 로맨스' 투입을 확정 짓고 최근 촬영에 들어갔다. 박광현은 극중 뉴욕에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유학파 재벌 2세로, 청운각 진안과 가까이 지내온 한상욱 역을 맡았다.

54회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박광현은 이진(오빛나)에게 도움을 받으며 인연을 맺게 되 박윤재(강하준)와 긴장감 넘치는 삼각 러브라인을 그릴 예정이다.

데뷔 16년을 맞은 박광현은 최근 출연작 SBS '청담동 앨리스', KBS 2 '루비반지' 등이 연달아 큰 흥행을 거두며 '히트 메이커'로 도약하고 있다.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는 '빛나는 로맨스'에 박광현이 극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인물로 새롭게 투입되면서 드라마의 새로운 활력소가 돼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기자

"불륜 소재 드라마 격 높였다"

막내린 '따말' 상처받은 부부 치유 설득력있게 그려 호평
한혜진 "값진 깨달음" 지진희 "자아성찰 계기된 작품"

대단원의 막을 내린 SBS 월화극 '따뜻한 말 한마디'(이하 '따말'·사진)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따말'은 지난 24일 방송된 20회를 끝으로 종영했다. 방송 초반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불륜을 미화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불륜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은 부부들이 진정한 관계 회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자 최영훈 PD는 "'따말'을 통해 어설픈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따뜻한 공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혼 후 복귀작으로 '따말'을 선택해 성숙한 감정 연기를 선보였던 한혜진은 "죄책감, 후회, 불안, 아픔과 슬픔. 수많은 감정을 안고 연기했었는데 드라마에서 작은 한마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포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드라마 제목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주변에 이러분의 사랑과 따뜻함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종영 소감을 전했다.

극중 유재학으로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인 지진희는 "이 작품은 연기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 같다. 나 또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었다"며 "이런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다. 작품이 좋은 것은 물론 함께한 제작진, 연기자도 좋은 분들이라서 즐겁게 촬영했다"며 촬영장의 화기애애했었던 분위기를 전했다.

톡톡 튀면서도 사랑스러운 나은영 역의 한그루는 "가족, 결혼, 연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다. 연기를 위해서 서로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셨다"며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당찬 의지를 드러냈다.

/장서윤기자 yoon@metroseoul.co.kr

'볼륨 몸매' 미란다 커 원더브라 모델 발탁 톱 모델 미란다 커가 란제리 브랜드 원더브라의 한국 모델로 발탁됐다. 국내 언더웨어 브랜드로는 처음 모델로 선정된 미란다 커는 원더브라 화보를 통해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공개했다. 원더브라는 2006년 5월 국내 론칭 이후 입소문을 모으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브랜드로, 이번 모델 선정과 함께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펼쳐 할 계획이다. /김보라기자

모델 한혜진 연기과 학위

톱 모델 한혜진(사진)이 경기대 평생교육원을 졸업하고 연기과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25일 경기대 평생교육원에 따르면 한혜진은 지난 21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 연기전공 학위 수여자 대표자로 참석했다.

한혜진은 평생교육원 엔터테인먼트학부 모델학 과정에서 공부했으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경기대 연기전공 학사학위를 받았다.

경기대 평생교육원에서 연기전공 학위를 받은 한혜진은 국내 최초로 뉴욕·밀라노·파리 등 세계 3대 컬렉션 무대에 참여해 세계적인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글로벌 클래스 톱 모델이다. 또 한혜진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JTBC '마녀사냥'에서 고정 게스트로 출연 중이다.

/유순호기자

85년생 동갑 박기웅·강동호 입대

1985년생 동갑내기 배우 박기웅(사진 오른쪽)과 강동호(왼쪽)가 올 상반기 군 입대를 확정 지었다.

박기웅은 오는 5월 8일 의무경찰로 군에 입대한다. 박기웅의 소속사 웨이브온엔터의 관계자는 25일 "박기웅이 오는 5월 8일 군에 입대한다"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의무경찰로 복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기웅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1개월 동안 의무경찰로 복무한다. 현재 그는 김기덕 감독이 제작에 참여하는 영화 '메이드 인 차이나' 막바지 촬영 중이며 촬영이 끝나고 입대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갑내기 배우 강동호는 다음달 18일 현역으로 군에 입대한다. 그는 강원도 춘천 102 보충대에 입소해 21개월간 복무한다.

지난 9일 뮤지컬 '웨딩싱어' 공연을 마무리한 강동호는 최근 노민우·이청아와 함께 출연한 인디 영화 '그 어느날 첫사랑이 제들어왔다' 촬영까지 모두 마친 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보준기자

임유진 '돌싱녀' 카메오 출연

미스춘향 진 출신의 배우 임유진(사진)이 MBC 새 수목드라마 '앙큼한 돌싱녀'에 카메오로 출연한다.

그는 27일 방송될 1회에 '확 을 때려디란 짝꿍-돌싱특집'에 여자 1호로 등장한다. 임유진은 공주병에 걸린 교사 역을 맛깔나게 소화했다. 이틀간 제주도에서 촬영한 이 장면에서 이민정은 여자 2호로 출연한다.

임유진은 "'짝소 짝'을 즐겨 보는데 드라마에서 돌싱녀가 돼 카메오로 출연하게 돼 감회가 새로웠다. 캐릭터에 몰입해 실제처럼 재미있고 즐겁게 촬영했다"고 전했다.

임유진은 2003년 미스춘향 선발대회에서 진을 차지한 후 장우혁의 '지지 않는 태양' 뮤직비디오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드라마 '20억 외인구단' '아카데미 살인사건', 영화 '48미터', '늦은 후 에' 등에 출연했다.

최근 학업에 전념하던 그는 7년 만에 서울예대를 졸업했다. '앙큼한 돌싱녀' 카메오 출연을 계기로 연기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

"경영은 상생" 일깨운 책

CEO 추천 '내 인생의 책'
이범권 선진 대표의 '카르마 경영'

"기업을 이끌어 감에 있어 높은 학식이나 우수한 전략보다 일에 대한 그리고 기업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이범권(종합시장·사진) 대표는 일본 최고의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이자 아메바 경영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진 이나모리 가즈오의 저서 '카르마 경영'을 소개하며 그의 경영 인생에 상생(相生)의 가치를 일깨워준 책이라고 밝혔다.

'카르마 경영'은 성공 신화에 대한 전략이나 기업 경영에 대한 방법론을 저술한 여타의 경영지침서와 달리 기업인이 지녀야 할 자세와 본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이 대표는 책의 내용 중 '무릇 상인은 남도 잘되고 자신도 잘되게 해야 한다. 남이나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상인의 궁극적 목표이다.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을 기억하라'는 구절에서 지금의 확고한 경영철학을 찾았다고 전했다.

'자리이타 정신'은 자신의 이로움이 곧 남의 이로움이라는 뜻으로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불교의 대승적 자원의 이상적 인간상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이것을 '상생'이라는 단어로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해 40주년을 맞이한 선진은 이런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오름 15도'라는 슬로건을 통해 2020년 미래 비전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오름 15도'란 기업의 성장이라는 화려한 비상을 이야기하거나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닌 함께 성장하고 고객 가치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가고자 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기업과 고객의 상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선진은 '윤리교육 강화'와 '윤리경영 추진위원회 발족'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신입사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기업의 목표는 윤리경영을 통한 상생의 가치 창출"임을 강조하며 '정도경영(正道經營)'의 필요성을 피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급이나 직무와 상관없이 회사와 기업에 대한 윤리의식과 마음가짐은 모두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믿는다"면서 "경영인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카르마 경영'을 추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영일기자 @metroseoul.co.kr

'겨울왕국' 돌풍 서점가도 점령

인기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출판가에 일으키는 돌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겨울왕국'이 2월 셋째 주(14~20일)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 무려 6권의 관련 책을 올려놨다고 25일 밝혔다.

지난주 1위 '디즈니 겨울왕국 무비 스토리북'은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지만 영어 원서 '프로즌(FROZEN)'과 '듣고 겨울왕국-디즈니 무비 클로즈업(4)'가 각각 한 계단씩 뛰어올라 5위와 6위를 차지했다.

'디즈니 겨울왕국 색칠 스티커북'은 3계단 상승해 16위에 올랐고, '디즈니 겨울왕국 스티커북 500'과 '스크린 영어회화-겨울왕국'은 각각 13위와 14위로 신규 진입했다.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관심을 끈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은 드라마가 막판을 향해 치달으면서 1위를 탈환했다. 이 책은 4주 연속 1위를 달리다가 지난주 '디즈니 겨울왕국 무비 스토리북'에 1위를 내줬다. /박지원기자

하루키의 '응답하라 1986'

화제의 책

더 스크랩
무라카미 하루키/비채

서른 중반 무렵 연재한 그 시절 추억의 이야기

지금은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이 전 세계 음악차트를 석권하고 파랑 펩시와 빨강 코카콜라가 열띤 경쟁을 펼치던 시대, 로키와 코만도의 남성적 매력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시대, 그래서 서른이 넘은 어른이라면 누구나 향수에 젖어드는 로망 가득한 1980년대다.

책은 환갑이 훌쩍 넘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서른다섯 살이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확히 말해 1982년 봄부터 1986년 2월까지 일본의 격주간지 '스포츠 그래픽 넘버'에 저자가 연재한 글들을 한데 엮었다.

그래서 책 속에서는 젊은 무라카미 하루키, 자연인 무라카미 하루키를 만날 수 있다. 저자의 일상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당시의 영화, 음악, 책 이야기도 풍성하게 들어있다.

특히 스티븐즈 에세이 속 담배를 끊은 후 담배를 피우는 꿈을 꿔 애꿎은 말보로 광고를 타박하기도 하는 장면은 자연스러운 웃음과 재미로 다가온다. 또 개장을 앞두고 있던 도쿄 디즈니랜드를 다녀온 후 쓴 방문기에서는 저자와 동행한 안자이 미즈마루의 일러스트도 함께 맛볼 수 있다.

이외 함께 당시 사회에 돌직구를 날리는 작가의 모습은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섹스 테라피스에 대한 이야기, 유명 인사의 연 수입을 키워드 삼아 쓴 돈에 대한 담화도 빠뜨릴 수 없다. 책에 삽입된 40여 컷의 새로운 일러스트는 추억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윤경용기자

새로 나온 책

인문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메디치미디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연설 비서관으로 일했던 저자가 8년간 두 대통령에게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말과 글'에 관해 정리했다. 저자는 핵심 메시지를 쓰는 법, 글의 기조를 잡는 법, 표현법과 퇴고의 방법 등 두 대통령이 주로 사용했던 글쓰기 노하우를 전한다.

느리게 읽기
데이비드 미킥스/위즈덤하우스

진지한 독자가 디지털 시대에 지향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고 느리게 읽기를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되찾을 것을 제안한다. 저자 데이비드 미킥스는 열네 가지 느리게 읽기 규칙을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시, 희곡, 에세이 등 여러 문학 장르에 적용해 설명한다.

사회
친애하는 빅브라더
지그문트 바우만/오월의봄

사회 사상가 지그문트 바우만과 감시사회 전문가인 데이비드 라이언 교수의 감시사회에 대한 대담을 엮었다. 바우만은 감시는 빅브라더로 상징되는 감시 권력에 의해 이뤄지지만 결국 현대인들의 자발적 복종이 이를 유지시킨다고 주장한다.

에세이
버니보이
안보니/[illegible]

어느 날 삼연의 이름을 간직한 버니 보이 안보니는 꽃이 활짝 핀 나무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하며 새 친구를 만나고 인생과 사랑에 대해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어린 시절 순수한 사랑을 글로 쓰고 노래로 전하는 등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어봤을 사랑 이야기다.

소설
조이랜드
스티븐 킹/황금가지

대학생 데빈이 여름방학에 '조이랜드'라는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 스티븐 킹은 청년의 복잡한 심리를 소년의 살인 사건에 얽힌 미스터리와 함께 한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노예12년
솔로몬 노섭/열린책들

뉴욕주의 자유 시민인 솔로몬 노섭이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서 12년이 지나 다시 자유를 되찾기까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소설. 12년 동안 몸소 겪은 노예 생활을 통해 자유를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노예들의 심정과 생생한 삶의 장면을 솔직하게 묘사했다.

풍아송
옌롄커/문학동네

중국 최고의 대학인 칭화대학 중문과에서 중국 최초의 시가집 '시경'을 가르치는 교수. 옌롄커가 쓴 소설. 베이징대학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이 작품은 대학에 대해, 교수들에 대해, 오늘날 중국 지식인들의 나약함과 무력함, 비열함과 불성실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건강
기적의 뇌 건강 운동법
한국뇌과학연구원 브레인트레이닝센터/[illegible]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뇌 역시 훈련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 책은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젊게 하는 '1일 20분 뇌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법을 소개하고 있다.

자기계발
어른의 공식
[illegible]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다뤘다. 인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선사들의 이야기 77편이 담겼다. 통념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생과 정면 승부해 자기만의 색깔로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긴 인물들의 이야기다.

생각을 경영하라
민재형/[illegible]

의사결정 분야 권위자인 민재형 서강대 교수가 인간의 직관적 판단 행태와 의사결정의 심리를 흥미롭게 파헤쳤다. 저자는 타성과 관행에 젖은 고질적 습성이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강조하면서 '판단은 습관'이라는 지론을 펼친다.

심석희 "좋은 경험…평창 기대하세요"

소치올림픽 선수단 귀국 김연아 12cm 초콜릿메달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해 뜨거운 승부를 펼쳤던 태극전사들이 귀국했다.

한국 선수단은 25일 오후 4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스피드스케이팅 '맏형' 이규혁(36·서울시청)이 태극기를 들고 앞장선 가운데 이상화(24·서울시청), 박승희(22·화성시청), 김연아(24) 등 선수단이 밝은 표정으로 뒤따랐다.

이번 소치올림픽에 역대 최다인 71명의 선수가 출전한 한국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며 종합순위 13위에 올랐다.

당초 목표였던 3회 연속 10위 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빙속 여제' 이상화가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고 쇼트트랙 여자 1000m와 3000m 계주에서 박승희가 2관왕에 오르며 전 세계에 한국 스포츠의 저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피겨 여왕' 김연아는 러시아 홈 텃세로 얼룩진 채점 논란 속에 올림픽 2연패를 아쉽게 놓쳤다. 하지만 환상적이고 완벽한 연기와 잘못된 판정마저도 대범하게 받아들여

"소치영웅 보자" 구름 인파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해단식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는 자세로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날 김연아는 "힘들게 준비한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대회를 홀가분하게 마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씩을 쓸어담은 '17세 여고생' 심석희(세화여고)는 4년 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의 주역을 일찌감치 예약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4년 남았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됐다. 더 경험을 쌓으면 4년 뒤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에 나선 이승훈·주형준·김철민도 값진 은메달을 수확하며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날 귀국한 선수들에게 대한체육회는 특별 제작한 지름 9cm, 두께 1cm의 수제 초콜릿 메달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통산 6번째 올림픽 무대를 밟으며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운 스피드스케이팅의 이규혁과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선수 인생에 막을 내리는 김연아는 지름 12cm로 더 큰 초콜릿 메달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소치에서 17일간 뜨거운 열전을 펼친 선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구슬땀을 흘리게 된다. 이상화를 비롯한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대표선수들은 26일부터 개막하는 동계체전에서 지역을 대표해 출전하게 된다. 김연아는 선수로서는 은퇴했지만 아이스쇼를 통해 팬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22일에 귀국한 컬링 대표팀은 바로 경북 의성으로 내려가 동계 전국체전을 치르고 있다.

/정익훈기자 ysw@metroseoul.co.kr

역시 끝판왕 오승환… LG전 1이닝 무실점

오승환(32·한신 타이거스)이 '끝판왕'의 위력을 되찾았다.

오승환은 25일 일본 오키나와 기노자 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연습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 20일 자체 평가전에서 처음 실전 투구를 벌여 1이닝 1피안타(1홈런) 2실점 1볼넷으로 부진했던 오승환은 첫 대외 실전인 이날 경기에서는 명예를 회복했다.

2-6으로 뒤진 9회초 등판한 오승환은 선두 타자 임재철에게 내야안타를 허용했으나 후속 백창수과 문선재를 연달아 삼진으로 잡았다. 다음 타자 최경철은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LG는 새 외국인 투수 코리 리오단와 호투와 장단 12안타를 몰아친 타선을 앞세워 한신에 6-3으로 승리했다.

추신수 평가전 1안타 1도루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2)가 이적 후 첫 출전에서 선전하며 새 시즌 맹활약을 예고했다.

추신수는 25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놀런 라이언필드에서 열린 자체 평가전에서 톱타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첫 타석에서 2루 땅볼로 물러났던 추신수는 3회말 내야 안타로 첫 출루를 신고했다. 이어 2루 도루에도 성공했다. 추신수는 4회초 수비때 교체됐다.

텍사스의 에이스 다르빗슈 유(28)는 추신수와 같은 팀 선발로 출전해 1이닝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부상으로 늦게 훈련에 합류했지만 시속 153km의 광속구를 뿌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정승호기자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25일

포항	1	1	오사카

득점 = 기구 미니 요이치(11) 기시본·오사카 배슨이(1)분

서울	2	0	센트럴코스트

프로농구 전적 25일

전자랜드	11	27	25	23	86
삼성	24	12	19	23	78

프로배구 전적 25일

기업은행	3	1	현대건설
현대캐피탈	3	1	한국전력

이제는 '체조요정' 손연재

모스크바 그랑프리 메달 사냥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사진)가 국제대회 정상에 도전한다.

손연재는 26일부터 닷새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014시즌 첫 대회인 모스크바 그랑프리에 출전해 메달권 진입을 노린다.

26~28일은 선수들의 연습 기간이고, 다음달 1일 개인 종합 경기가 열린 뒤 각 종목 8위까지만 2일부터 종목별 결선 경기를 펼친다.

손연재는 시니어 같은 대회에서 개인 종합 10위에 올랐다. 곤봉에서 동메달을 따낸 뒤 같은 해 7월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출전한 모든 국제대회에서 메달권에 진입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8월에 열린 키예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은 놓쳤지만 개인 종합 5위에 오른 손연재는 인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4연패에 성공했다. 후프 종목에 맞춰 루드비히 민쿠스(오스트리아)의 발레 '돈키호테'의 곡을 골랐고 리본 종목의 새 음악으로는 이국적인 풍의 '바레인'을 선곡했다.

곤봉 종목에는 파트리지오 부안느(이탈리아)의 '흥겨운 노래 루나 메조 마레(바다 위에 뜬 달)'를, 볼 종목에는 러시아 작곡가 마크 민코프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요'를 선정했다.

/정성훈기자 ysw@

류현진 내달 1일 시즌 첫 등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사진)이 다음달 1일 올 시즌 처음으로 공식 등판한다.

25일 MLB닷컴에 따르면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시범경기에 류현진을 선발로 예고했다. 시범경기 첫 주에는 클레이턴 커쇼, 잭 그레인키, 류현진, 댄 하런이 차례로 등판한다. 다저스는 27~28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2연전으로 시범경기를 시작한다.

류현진은 커쇼와 그레인키에 이어 변함없는 3선발로 팀 내 입지를 탄탄히 했다. 지난해 2월 열린 화이트삭스와의 시범경기에도 출전해 1이닝 1피안타 무실점 1탈삼진의 인상적인 투구를 했던 류현진은 7차례 시범경기에 등판해 2승2패, 평균자책점 3.29를 기록했다.

매팅리 감독은 다음달 22~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정규시즌 개막 2연전 선발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신세계와 구세계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와인 생산국은 크게 구세계와 신세계로 구분된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와인 재배는 이집트와 터키를 거쳐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다시 유럽의 다른 나라로 전파된다. 그렇게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구세계 와인 산지가 완성된다.

구세계는 와인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해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이 대표적인 나라다.

구세계 와인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럽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로마 제국의 영토와 와인 산지는 거의 정확히 일치하며 확대됐다. 중세 성직자들의 필요에 의해 와인 양조가 발달했고 흑사병의 창궐 후 물을 기피하게 되면서 와인이 일상의 음료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의 화려한 파티 문화 또한 그렇다.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의 중심 메디치 가문에 의해 와인을 곁들인 파티 문화가 프랑스로 전파됐다.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전쟁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 보르도 지방의 쟁탈전이었다.

백년전쟁에서 패한 영국은 보르도를 대체할 와인 산지를 찾아나선다. 그 결과 포르투갈 와인이 선택받았다.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운반하는 도중 와인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정을 첨가한 주정강화 와인, 오늘날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포트와인이 만들어졌다.

신세계 와인 산지는 유럽 각국의 식민지 개척에 의해 구축된다. 신세계의 대표로 꼽히는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모두의 와인 생산은 서구 열강의 점령과 함께 시작됐다.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파견되거나 거주 목적으로 이주한 서구의 귀족과 부유층은 이미 습관화된 와인 음용을 포기할 수 없었다. 동시에 식민 지배를 위해 기독교나 가톨릭을 전파한다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도 와인이 필요했다.

이들은 본토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와 식민지에 이식했고 그렇게 해서 신세계 와인 산지가 조성됐다.

신세계 와인은 계속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나라 안에서도 재배 면적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가도 늘어난다. 중국,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illegible]

날씨

2/26水 해뜨는 시각 07:08 해지는 시각 18:2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illegible].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만성 기침은 복근 결림, 근육 파열, 흉골 골절, 잠 따엄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조기에 치료해 만성 기침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재발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illegible] 서울백병원 (www.[illegible].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3	2	6		8	9		
	9			4	5	8		
	5	8				3		1
1		6				7		5
7		3				6	2	
		1	8	5			7	
		5	7		2	1	9	

9			8	7	2	1		
	4	5	3					
8							9	
2			6			9		
	7	9				2	5	
		4			7			1
	3							7
					3	6	1	
		8	2	6	4			9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펜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기유)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illegible].com

식탐 많아 아침에 늦게 일어나 조직에서 시간은 가장 큰 약속

2HSTJ 여자 92년 9월 24일 음력 오전 3시

Q 사회 초년생입니다. 식탐이 많아 밤에 많이 먹다 보니 아침에 깨어나기 어렵고 회사에 자주 지각하게 됩니다. 먹는 것을 자제하려 해도 왕성한 식욕을 절제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식탐을 줄일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고 남의 물건을 제 것처럼 쓰는 것은 복을 깎는 [illegible] 거리가 멀겠지요. 세상에는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고 다른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내가 한 행위에 이자까지 붙어 대가를 지불한다는 생각을 해두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다루고 아낄 때 덕이 쌓이는 것이며 이 덕은 화를 막고 복을 부르는 기본이 됩니다. 은행에 저금을 하면 시간이 지나 이자가 붙듯 조직에서 시간은 가장 큰 약속입니다. 조직에서의 시간 또한 남의 물건이 될 것이니 나를 살찌게 하는 원동력을 소진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가 옮겨 장사 계속하고 싶어 버거운 집세 탓에 더 힘들어져

ehhasha 여자 76년 11월 26일 음력 오후 6시30분

Q 4년 전부터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상가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좋은 곳으로 옮겨서 10년 이상 더 하고 싶습니다. 사업운이 좋을까요.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 가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합니다.

A 태어난 연월일시를 부호로 적어 사주팔자가 이뤄질 기둥이 됩니다. 팔글에서 겁재운이 존재하는데 겁재란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는 일이겠으나 보너스를 타거나 예상 외의 수입이 생기면 꼭 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겁재운이 있는 사람은 주식보다는 금리가 낮더라도 은행 예금에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돈을 잘 새게 됩니다. 따라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데서 즐거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적용시켜 볼 때 잘되는 곳으로 가게 되면 버거운 집세로 스트레스가 가중돼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 이사 간을 [illegible] 분위기는 오히려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남편 뜻을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월 [illegible] 음 1월 [illegible]일 김학수 인생상담 [illegible]

쥐 48년생 먼 곳으로 외출할 일이 생긴다. 60년생 화가 나도 [illegible] 참지 마라. 72년생 회선 다하면 얻던 복도 생긴다. 84년생 재능이나 배경 믿지 말고 노력하라.

소 49년생 꽃이 져야 열매 맺는 법이다. 61년생 걱정한 일은 무탈하게 넘긴다. 73년생 추운 겨울에 우체 선물하지 마라. 85년생 작은 변화로 삶에 활력이 넘친다.

호랑이 50년생 고목에 꽃이 핀 격이다. 62년생 마음을 안정시킨 후 새 일을 도모하라. 74년생 벗어 곳을보따리 선물한다. 86년생 계획이 어긋날 수 있으니 대비하라.

토끼 51년생 내 생각과 다른 사람도 이해할 것. 63년생 걱정한 일은 잘 마무리된다. 75년생 애매한 언행은 오해 부른다. 87년생 부모에게 선물하면 큰 기쁨 생긴다.

용 52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 부른다. 64년생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치니 조심. 76년생 친구와의 돈 거래는 철해야 본전. 88년생 속내 함부로 드러내면 손해 자초.

뱀 53년생 집안일에 잘 관여라. 65년생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77년생 작은 성공에 들떠 큰 것 잃지 않도록 하라. 89년생 상사의 칭찬에 출근이 즐겁구나.

말 42년생 평범에 얽매이면 전진 못 한다. 54년생 변화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여라. 66년생 내놓은 자식이 효도하는 격. 78년생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니 걱정 마라.

양 43년생 호흡기 계통 질환 조심. 55년생 생각지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67년생 사람 사귀는 데 이해관계 따지지 마라. 79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목적지 보인다.

원숭이 44년생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 56년생 구설수 있으니 언행 조심할 것. 68년생 남을 도울 수 있어 보람찬 하루가 된다. 80년생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 되새겨라.

닭 45년생 편히지 않은 감투는 사양할 것. 57년생 딩 풀린 만큼 걸리도 좋다. 69년생 곤란한 부탁이다 정다운 미루는 게 좋다. 81년생 통하는 벗이 생겨 즐겁구나.

개 46년생 멀리 문상 갈 일 생긴다. 58년생 드디어 고난의 종착역 보인다. 70년생 감언이설에 현혹되면 나중에 땅을 친다. 82년생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돼지 47년생 건강 빨간불이니 조심할 것. 59년생 주관대로 밀고 나가면 순탄하다. 71년생 실속 없는 일에 바쁜 하루. 83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면 큰 것이 들어온다.